전략연구 2016-40

충남 농업 6차산업분야 지역자원 활용 및 확대 전략

정현희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
권오성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수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발 간 사

농촌의 과거 식량생산과 식량증산을 목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기도 하였고 최근에는 농촌의 환경과, 정주공간으로까지 식량생산뿐만 아니라 공간적 측면까지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농가의 소득 구조와 소득수준입니다. 지속적인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상대적 취약한 것은 변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업구조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6차산업화법안이 2015년 국회를 통과되었고 농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6차산업은 농업에서 생성되는 2차 3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농어민에게 돌려주자는 개념입니다. 비록 준비기간을 포함해 4년차에 접어들었지만, 6차산업 경영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농업, 인적, 물적 자원들이 농업의 6차산업화로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를 보여 주어 짧은 시간 동안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6차산업화의 효과는 지역의 고령자와 여성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농촌소외계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6차산업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중규모 이상의 농업 경영체 중심의 성장 위주의 정책, 6차산업으로 인한 소득격차, 제조·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등 앞으로 6차산업화의 내실 있는 발전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연구는 6차산업화의 개념과 방법, 의의에 대해서 논의되던 기존 연구와 달리 6차산업화의 진단과 더불어 '지역자원' 관점에서 완성도 높은 6차산업화의 발전 방향을 공통전략, 지역자원의 활용전략, 확대전략 총 10가지 전략으로 앞으로 6차산업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 추진에 있어 자원을 활용하려면, 자원을 보호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럽과 같이 경관관리(natural management)에 따른 직불정책이 필요함을 중요 척도로 제시하였으며 앞으로 6차산업화 방향성을 농촌환경 정책에 초점을 맞춰함을 제시해 선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 있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정현희 책임연구원 및 내부연구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많은 조언과 토의를 해 주신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연 구 요 약

I. 충남 6차산업 현황

1. 6차산업이란?

◦ 우리나라 농촌은 한국전행 이후 50년에 걸쳐 많은 변화를 시도를 해 왔다. 2000년 이전까지는 생산량 증대라는 농업의 단편적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였고 1998년 이후 최근까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진 공간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

◦ 농촌은 마을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윤원근, 2010).

◦ 이로써 과거의 농촌은 생산중심의 농촌에서 2000년 이후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공간적인 접근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생산과 가공 서비스의 포괄하는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 정책(이하 6차산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 6차산업화정책은 생산자발 가치사슬 모델로 일본 오이타 현 오오야마 농협이 낙후된 산촌마을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사례에서 발전하여 도쿄대학 이마무라 교수가 체계화하면서 확대되었다.

- 6차산업화의 논리는 전통적으로 농민은 생산만을 담당해 왔는데, 농산물의 식품가공(2차)은 식품기업이, 농산물의 유통과 관련 정보 ·서비스 ·관광(3차산업)은 대부분 도소매업자와 관광업자가 차지하는 상황에서 그 가치를 농업분야로 되찾아 오자는 주장이 6차산업화의 핵심이다(황영모 농업 생산자의 부가가치 창출전략, 농업 농촌의 6차산업화 해부하기).

- 2010년 초기 우리나라에서 처음 소개되면서 6차산업화라는 것은 단순 1차×2차×3차=6차의 개념으로 이해되어 농산공융합과 같은 모델로 이해되거나, 농산물 가공업체가 주도하여 생산자와 연계하는 형태로 추진되어 6차산업화 사례지역이 매우 거대한 공룡회사로 발전하는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였다.

◦ 농업의 6차산업화의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유학렬, 이영옥(2014)가 제시한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 농업에 기반을 둘 것, 둘째, 6차산업화로 창출되는 1·2차 산업의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것, 셋째, 3차 산업역시 지역 내 6차산업 경영체가 주도할 것, 넷째, 6차산업 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자립 능력을 부여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 따라서 6차산업은 지역 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첫째, 농업인이 주도해야 하며, 둘째,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셋째, 지역자원을 활용 2차와 3차산업까지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6차산업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6차산업화 정책 개요

◦ 2013년 7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 종합대책」의 발표를 통해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의 세 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과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 확산,
둘째, 농촌의 인적역량을 귀농 · 귀촌,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로 보완,
셋째,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사업초기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네트워크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2014년 5월 “농촌융복합산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되었으며, 1년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5년 6월 4일 시행되었다.

◦ 본 법률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정의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 · 자연 · 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률 1장 2조).

◦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 농촌의 발전,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법률 1장 1조).

- 주요내용으로 6차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 및 시·군의 농촌융복합산업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관리,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 중간지원조직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등 총 6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9개의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인(6차산업화지원센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즉, 6차산업화 인증 및 사후관리 6차산업화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판매플랫폼구축,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중앙단위 6차산업화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6차산업 홈페이지(6차산업.com)를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 및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기관의 정책 사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 6차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지원정책의 13.1%인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6차산업 주관 부서인 농촌산업과는 10개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 교육, 수출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에서 정책사업이 추진 중이다.

- 전체 지원 사업 183개 중 162개인 88.5%는 식품 자원에 대한 육성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식품은 6개, 식품+비식품은 15개로 나타났다.
- 비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5개가 산림청 사업, 1개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비식품 자원 중 농촌보다는 자연(산림, 경관 등)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식품+비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체험/관광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농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2차 산업) 중심형, 유통 및 관광분야(3차산업) 중심형 그리고 1차×2차×3차 산업(융복합산업)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2차 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이 6개 사업, 3차 산업 중심이 11개 사업, 융복합 중심형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별 지원 대상 즉 경영주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 경영체 단위 지원이 10개 사업, 지역공동체 단위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3) 충청남도 6차산업화 정책

◦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은 2010년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함께 농정의 핵심 사업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 특히 2012년 농어업6차산업화 확대ㆍ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농어촌 복합산업화사업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특 501억을 포함 총 1,0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던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2011년에는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으로 충남연구원 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설치하여 6차산업화 확산 및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주요 시책은 총 16개 사업으로 시설지원 6개 사업, 체험관광 지원 5개 사업, 마케팅지원 4개 사업, 컨설팅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충남의 대표적인 6차산업화 시책사업인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자원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마을 내 여성 및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지원사업과 지역 내 농산물 활용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농식품 우량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 본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총 3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마을단위 두레기업 창업 28개소, 지역단위 농식품 우량기업 8개소가 육성되었다(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계획_4차_2016년).

- 기타 농식품생산자직판장구축,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등의 시설지원 사업과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 우수제품 판촉지원 등의 마케팅 및 판로지원 사업 과 체험ㆍ휴양마을지원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원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창업단계 지원 4개 사업과 창업 및 성장단계 지원 1개 사업, 성장단계 지원11개 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II. 6차산업으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1. 긍정적인 효과

1)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경영체 매출액 2014년 대비 2015년 18% 증가

◦ 6차산업으로 인해 신규 일자리 창출

연도별	경영체수	평균매출액 (백만원)	일자리	비고
2015	1,291	1,851(▲18%)	9,514(▲6.3%)	외국인제외**
2014	1,110	1,516	6,095*	

참고 : * 유급종사자에 한함
참고 : ** 2015년도부터 조사한 외국인 (상시, 임시) 종사자는 205명으로 조사됨

- 농촌 여성, 이주여성, 고령인의 사회적참여 기회가 확대 되었다.
- 전체 6차산업 종사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16% 많고, 유급 임시직의 경우에는 70%를 차지해 고령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2) 농촌 지역사회의 중심차 역할을 하고 있다.

◦ 충남의 밤, 사과, 콩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원재료, 제조·가공 분야, 서비스, 제도분야에 대한 지역내 자원 활용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적으로 충남외에서 유입되는 지역자원은 3.8%로 파악되어 6차산업이 지역자원 활용도가 높아 지역 농업의 중심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6차산업 정책의 문제점

1) 기존의 농촌산업 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하다.

◦ 6차산업 융복합법에 따르면 6차산업은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기타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해 2차산업 그리고 3차산업으로 연계되어 지역 활성화를 꽤하는 것인데 현재까지의 6차산업화 정책은 기존의 농촌산업 정책과 별반차이가 없는 획일적 수직적 농촌산업 정책이다.

◦ 정부의 지원정책을 종합해본 바에 따르면 식품이 183개 전체 지원 사업 중 88.5%를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식품가공과 판로확대에 있다.

2) 농촌 지역 소득 불균형에 대한 문제

◦ 충남도 6차산업 경영체 기초실태조사 분석에 의하면 1,297개 6차산업 경영체의 평균 매출액은 11억 7천만원으로 우리나라 농가 평균 매출액이 평균 3,300만원, 조수입은 1,200만원인데 반해 매우 높다.

◦ 경영체의 창업년도는 5년 이상 25년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6차산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경영체에 중복 지원되고 있다.

3) 지원과 보조사업 성격이 강하다.

◦ 6개의 6차산업 대표 정책지침을 활용 텍스트마이닝(정책 키워드) 분석을 시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배경(context)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정근하, 2011).

- 6차산업 정책의 대표적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 또는 복합산업[1]이라고 하는 1)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 충남은 두레기업으로 명명하고 있다.

과,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는 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클러스터 산업 혹은 향토산업육성 산업이라고 하는 3)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이 있다. 그리고 각 시·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프로그램은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하고 사후 관리하는 3)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과, 경영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거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4)현장코칭사업, 6차산업 인증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5)안테나숍 운영이 있다. 또한 지역의 6차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자원 조사로써 6)6차산업 기초실태조사와 제조가공 시설 디렉토리 사업 지침이 분석 정책 표본이다.

◦ 텍스트마이닝 분석 결과 22,041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이중 10번 이하의 빈도를 보이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남은 총 19,755개의 데이터[2]를 6차산업 정책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형상화 할 수 있었다.

◦ 1순위 키워드는 '사업'으로 총751회 전체의 3.8% 빈도 비율을 차지하였다.

◦ 2순위 '지원'은 339회 1.7%로 1순위의 절반 정도의 빈도를 보였다.

◦ 수집된 비정형 정책 지침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방법, 기준, 예시, 방안에 대한 사업 지침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 2순위인 '지원'은 농가나 경영체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지원이나 자금지원이 될 것임으로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지원과 비슷한 키워드로 '보조금'이 11순위를 차지하였고, '보조사업' 또한 24순위로 다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이 '정책사업'은 '지원사업'혹은 '보조금[3]'이라는 공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6차산업 정책 또한 보조사업 비중이 큰 부분임을 알 수 있다.

---

2) 세종한글사전 기준으로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3) '보조금'은 11순위 빈도를 보였고, '보조사업'또한 24순위를 차지해 6차산업정책 또한 보조사업

◦ 3순위는 ‘마을’로 나타났으며 마을은 농촌자원을 생성해 내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보인 것에 조금이나마 안도가 된다. 마을은 주체로서의 마을과, 지역으로서 마을 그리고 공간으로서 마을 세 범주를 대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 평가 대상이 6차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6차산업’ 정책 키워드가 5순위에 올랐고, ‘6차’라는 키워드 또한 80위에는 못 들었지만 36건의 빈도를 보여 예상했던 대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 10순위는 마을보다 더 큰 범주를 나타내는 ‘지역’이 차지하였고, ‘농촌’이 13순위, ‘식품’ 14순위, ‘체험’ 16순위, ‘농림’ 20순위, ‘축산’ 23순위, ‘사업자’ 38순위로 사업 목적에 맞는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지역자원 활용에 있어서 산업적 관점이 강하다.

◦ 산업적자원,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사회적자원의 네 가지 지역자원 분류표에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를 할당하여 6차산업과 정책 키워드의 연계분석을 시행하였다.

◦ 분석 결과 산업적 자원에 속하는 정책 키워드는 6차산업(185), 제조(177), 식품(119), 체험(113), 농림(102), 축산(99)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었다. 산업적 자원은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이나 농업, 축산과 같이 6차산업의 기초가 되는 키워드가 주로 포함되었다.

◦ 역사·문화자원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향토’ 35건과 ‘문화’가 12건으로 분석되었다. -상품에 스토리와, 역사 문화를 가미하면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 6차산업 상품을 단순히 생산-가공-유통에서 벗어나 상품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자원·환경자원에 속하는 키워드는 7개 키워드로 ‘개선’(38), ‘자원’(39), ‘토지’ (36), ‘휴양’(19), 경관(18), 공원(17), 생태(10)로 분석되었다. 총 빈도수는 188회 전체의 5.3% 비율을 보여주었다.

◦ 사회적 자원은 전체 키워드 중에서 2순위를 기록한 마을(218)을 비롯하여 농촌(120), 농어촌(51), 주택(50), 교육(42), 법인(35), 주민(35), 역량(33), 건축(33), 공사(34) 등 총 20개 키워드로 전체의 839 빈도 24%를 차지해 6차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자원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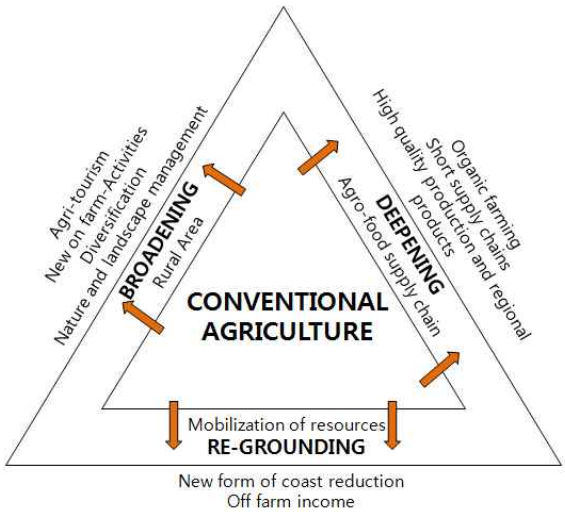
◦ 결론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중앙정부의 6차산업 정책은 원물 중심의 1차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하고 이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이나, 지역사회 발전, 사회간접 시설 개발과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농촌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전은 물론 활용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고, 생물 다양성이나 경관가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며 좋은 경관과 환경을 가진 농촌에 사람이 방문하고자 하는 원칙을 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II. 6차산업 해외 사례

1.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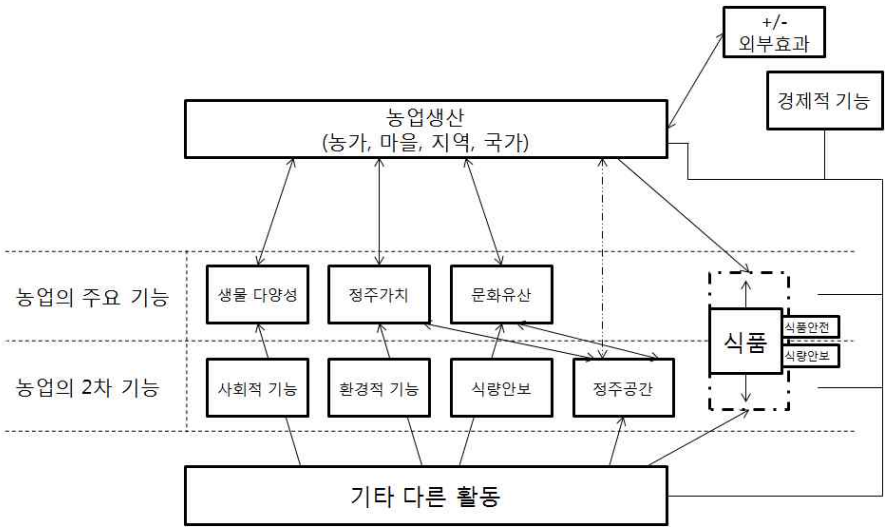
◦ 유럽연합(EU)에서는 공통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e Policy)이 시행되고 있다.

<그림> 다기능 농업 효과



자료 : Van der Ploeg et. al. 2002

<그림>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의 형태



◦ 다기능 농업은 농업의 기초적인 기능인 식량생산을 넘어 생물다양성 회복, 환경정화, 어메니티 복원, 문화유산 활용, 식량안보 등 과거 농업분야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농촌사회를 아우르는 농업이라고 할 수 있다(belletti.G 2002, 정현희,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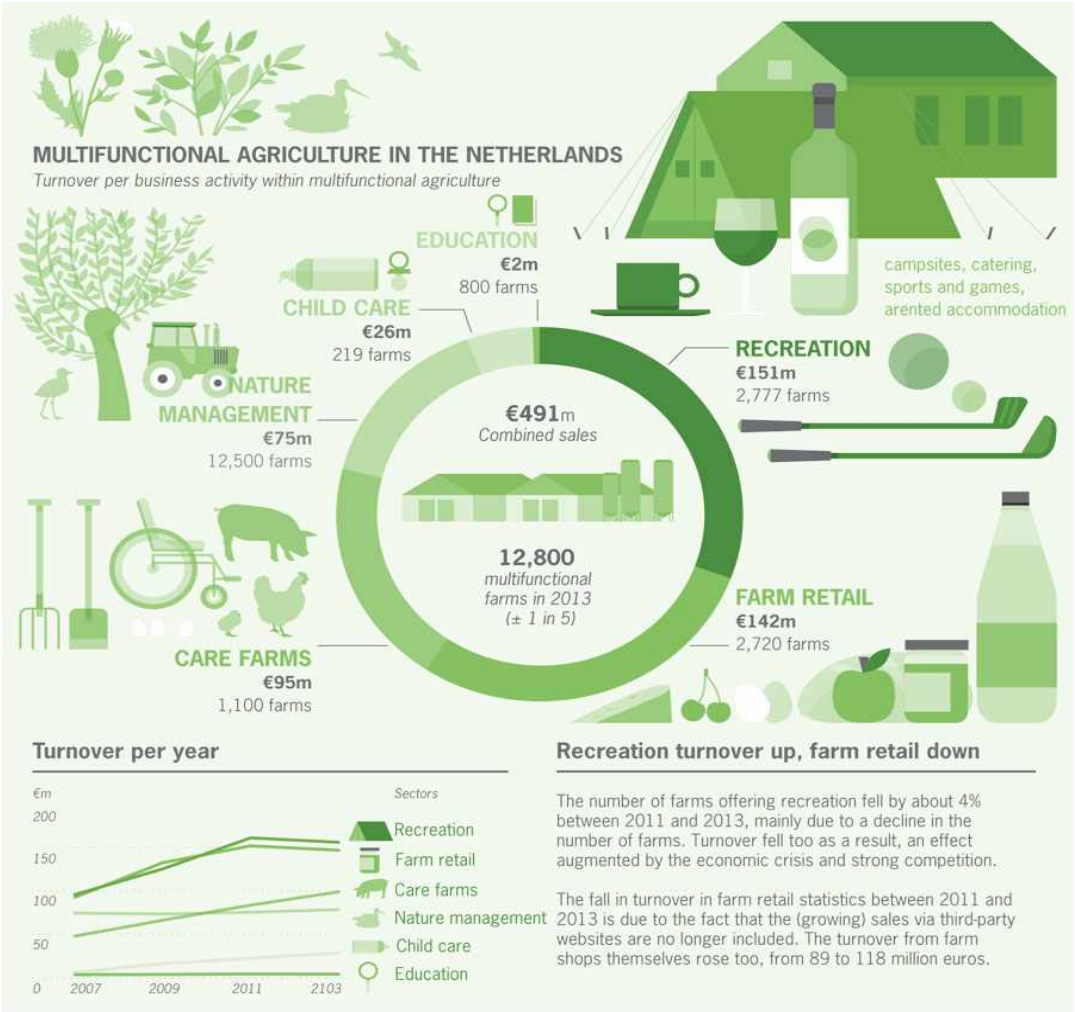
◦ 네덜란드는 유럽의 공통농업정책을 다기능 농업으로써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농업의 경제적 가치를 두 배로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정부 산하 민간 및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다기능 농업 테스크 포스(Multifunctional Farm Task Force)를 네덜란드 와게닝겐(WUR)에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 테스크 포스는 시장수요의 증진(add-value) 지역소통 공간의 제공(communication), 기업가 정신의 강화(education),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개발(network), 현장접근 연구개발(R&D)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운영되었다.

◦ 네덜란드의 다기능 농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산성이 높고 기술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농업 상황에서 최초로 다기능 농업을 집중적으로 정책적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통합적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매우 획기적인 정책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다기능 농업은 6개의 정책적 범주로 치유(care), 돌봄(child care), 직판(direct sell), 농촌관광(echo-tourism), 레크레이션(recreation), 교육농장(education)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구조



◦ 에이크 후퍼(치유 농장, 사회적 기업 농장)

- 이 곳 치유농장은 축구장 크기의 16배나 되는 12ha 토지에 유기 농업 방식으로 채소와 6천 마리에 이르는 닭을 키우고 있다. 치유 농장을 찾는 고객은 주로 알코올 중독자, 정신 이상자, 치매환자, 노인 등이며 총 인원은 85명이 상주하고 있다. 간호사와 20명의 돌봄 코디네이터가 환자별 다채로운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농장에서 필요한 인력은 상주하는 치유 프로그램 참가자가 닭을 키우거나, 채소를 수확하는 등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생산된 농산물과 달걀은 유기인증을 받고 전 세계로 판매 하거나 치유 프로그램 환자 가족 등 일주일에 약 7천에서 8천명의 유동인구가 찾아와 농장 바로 옆에 있는 직판장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이곳 에이크 후퍼 농장의 연간 총 매출액 120만 유로이며 이중 절반이 직판장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 그립 읍 여 레이픈(어린이 치유 농장)

- 그립 읍 여 레이픈은 여의도 면적의 1/4 크기인 네덜란드 생태보호구역 안에 네덜란드 치료기관과 연계된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치유 농장이다. 주위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그리고 정신적 상처를 받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이곳 치유 농장의 주요 고객이다.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동물들과 교감하며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 상처를 치유 한다. 이곳 농장에는 현재 200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상주하고 있다.

◦ Farm Zonnehoeve(돌봄 농장, 체험농장, 교육농장, 직판장)

- Farm Zonnehoeve는 네덜란드 동북부 알메르(Almere) 간척지역에 위치한 가장 오래된 바이오다이나믹(bio-dynamic)농장이다. 이곳 농장에서는 14명의 종사원과 돌봄 의료가정이 종사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50ha규모로 60마리의 홀 슈타인 육우와, 밀, 밀짚, 사료용 토끼풀, 사탕무 등을 다각화(mixed farming) 유기농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목초지의 초목은 가축 사료로 사용하고, 배설된 분뇨는 다시 퇴비로 환원되는 자원순환형 농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농업생산 이외에 사회적 기능으로 돌봄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 가정과, 전문 돌봄 직원이 상주하여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 농장에서는 종마를 사육하고 있으며 승마체험도 진행하고 있다. 농장 한편에서는 이곳에서 유기생산된 밀로 빵을 직접 만들고 있으며, 약물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일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 치유활동도 함께 하고 있다. 교육농장에서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자연과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기업 워크숍도 유치하는 등 전통적 농업형태를 심화(deepening), 포괄화(broadening)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유럽 다기능 농업의 성공요인은 농촌 역사문화 존중 및 농촌경관관리에 있다

Ⅳ. 6차산업의 발전 방향

1) 6차산업화 다변화 정책 방안 모색

◦ 2013년 7월에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4년 5월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6차산업이 확대되었다. 6차산업법의 기본이념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차산업의 일반적인 개념은 1차 산업으로서의 농촌자원과 2차산업으로서의 제조업, 3차 산업으로서의 소매업 등을 종합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병오, 2013).

◦ 따라서 법률과 정의에 의한 6차산업은 첫째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농가의 소득향상이며 두 번째로는 다양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신 성장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지만 6차산업을 3년 동안 추진하면서 1차 자원을 단순 농산물 원물로만 여겨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6차산업 인증자의 100%가 농산물 원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6차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단순 농업경영이나 지역 농업의 수직적 다각화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성과 중심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기존의 농업생산정책, 구조정책, 농촌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강화,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의 농촌산업화 정책에서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정부정책 간 연계강화 및 단계적 발전 정책

◦ 박근혜정부에서 6차산업화 정책이 농업의 중심 전략으로 추진되면서 3년 동안 6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83개가 추진되고 있다. 추진주체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산림청, 각 시·도 농업관련부서, 기타 각 시·도 공공(연구)기관 등 농업인은 6차산업화 정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는지 혼선이 일 수 있고, 사업 간에도 농진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과 충청남도의 두레기업(마을)과 같은 유사중복 사업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나 성과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미 6차산업화를 잘 추진하고 있던 농업 경영체[4]에게 사업이 중점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사업도 추진 주체만 다르면 비슷한 사업이더라도 한 경영체에게 중복 수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6차산업 통합지원 조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들을 위계화하고 지원내용을 차별화 하며, 수준별 차등화,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3)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정책

◦ 농업의 6차산업화를 잘 하는 것은 앞서 설명되었듯이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가공해서 잘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자원이라 하면 농림수산물도 있겠지만, 농촌에 산재한 자연자원(동물, 식물, 물, 지형 등)과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의 역사·문화·풍습도 있겠고, 사람도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무형(바람, 햇빛, 경관, 공기)의 자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농업과 지역과 연결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6차산업인 것이다.

◦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6차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조사가 필요하고, 혹은 지역자원을 창조해야한다. 지역자원의 발굴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전문가,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에서

4)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1,2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충남 6차산업 농가의 연평균 매출액은 19억이고 1억원 이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 매출액은 18억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매출액 규모	경영체 수(%)	경영체 수(%)	평균(백만)
~5천만원 미만	265(19.8)	503(37.6)	50
5천만원~1억원	238(17.8)		
1억원~5억원	473(35.4)	592(44.3)	318
5억원~10억원	119(8.9)		
10억원~50억원	169(12.6)		
50억원~100억원	41(3.1)	242(18.1)	9,528
100억원~500억원	29(2.2)		
500억 이상	3(0.2)		
합 계	1,337(100.0)	1,337(100.0)	1,897

부족한 자연자원이나 전통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임으로 이러한 자원을 화용하여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김용렬, 2014). 둘째로 6차산업 인증제도 상에서 지역자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야한다. 현재 6차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 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자원을 농산물로 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역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있는 경영체로 한정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 6차산업 인증을 받는데 제약이 따름으로 6차산업 인증 요건의 범위를 폭 넓게 확장하여 지역자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6차산업 통합 정책 지원 조직 육성

◦ 농업의 6차산업화나, 다각화 혹은 다기능 농업화 전략을 취하고자 할 경우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농업과 관련된 포괄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6차산업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 지원과 관련된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양현봉, 2015).

◦ 현재 6차산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에서 총괄하며 충남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서 충남의 6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향토산업육성, 복합자원화사업과 같은 농업의 식량자원을 산업화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사업인데 주로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충남의 86개 6차산업 인증 농업경영체를 조사해 보면 전체 인증 농가 중 99%가 농산물 가공 중심의 6차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6차산업이 2차 가공 중심 산업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다기능 농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매환자나, 알콜이나 약물 중독자에게 맞춤 치료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농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수와 매출액이 연평균 17.98%, 33.3%씩 증가하였다. 마을 주민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농장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 수는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연평균 123.6%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이 점차 사회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돌봄 농장은 마을 주민의 아이들이나 도시의 아이들을 정식 등록된 어린이 돌봄 농장에 맡겨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농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농업과 사회안전망과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앞선다. 농업은 농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치유농장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서 치유농장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병원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농장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의 돌봄 교실에만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을 교육농장에도 똑같이 지급해 교육농장이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 2014년부터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전략으로 6차산업 추진을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사회적서비스, 농촌관광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지원조직은 농촌산업분야(농촌산업정책), 분열된 공동체 회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분야(삶의질 향상정책),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전을 위한 분야(마을 만들기 정책) 마을과 경관과 자연을 보전하여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분야(환경친화농업정책)를 융합하는 포괄적 지원 조직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그리고 지방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구성에 그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5)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

◦ OECD는 「농업과 환경의 정책통합」이라는 1993년도의 정책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업생산력을 확보하면서 환경상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 체계로 규정하며, 네 가지 조건으로 ① 경제적으로 성립하는 농업생산체계라는 것 ② 생산수단으로서 자연자원의 기반을 유지·향상시키는 것

③ 농업이외의 생태계를 유지·향상시키는 것 ④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김창길, 2007).

◦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정책은 1994년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신설되고 1997년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재정되면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농업정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 정책은 아직도 논의거리로 각 국가별로 친환경 농업 정책의 의미가 다르다. 실제로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친환경 농업의 개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이라는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농촌의 경관과, 지형, 주거 등과 같은 농촌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음으로 친환경 농업 정책보다는 환경친화적 농업 농촌 정책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의 종합적인 환경 농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6)농촌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금 정책

◦ 2016년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규모는 19.4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2.5%씩 증가하고 있으나 총지출 대비해서는 2005년도 6.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업부분의 예산 비중은 2016년 기준 양곡관리·농산물유통이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농업체질강화 21.7%, 농가소득·경영안정이 21.5%, 농업생산기반조성이 15.4%, 농촌개발·복지증진이 12.3% 그리고 식품업이 5.9% 로 배분되어 있다.

◦ 전체 농업예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9.7%로 스위스 75%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직불금 중 63%가 쌀에 투입되는 고정직불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전체 예산 중 양곡관리·농산물유통이 가장 큰 23.4%를 차지하여 농업 생산물의 양적 성장 위주의 농정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농촌환경, 경관 및 역사·문화 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직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문화·경관(kulturlundschaft)[5] 직불금으로 농가마다 농업 소득의 80%[6]를 직불금으

로 보전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평균 3만 유로이며 우리나라 농가 평규 소득 1천1백만원의 3배에 달하는 소득을 오로지 문화·경관 직불금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김대홍 : 문화경관 직불금 베푸는 독일 켐덴 농업국, 2016). 유럽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생산실적에 따른 목적성 지불 정책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03년 EU 공동농업정책이 시행되면서 생산규모에 연계되지 않고 경지규모가 크거나 작거나에 구애받지 않는 생산 중립적 단일직불제(SPS: Single Payment Scheme)를 적용하여 농업 농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농촌에서 생성되는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확대를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고, 지역자원을 보전하고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비시장 재화(NTC : None Trade Concern)로 직불정책제도를 경관개선,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같은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들은 농산물과 더불어 6차산업 정책의 기초자원들이다.

---

5)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직불금 정책
6) 바이에른주 직불금 지불 현황(직불금 예산은 EU 50%, 독일정부 30%, 주정부 20% 분담)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 3
1. 지역자원의 정의 ····· 4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9

제2장 6차산업 국내외 정책 동향 ····· 13

제1절 국내 6차산업화 정책 ····· 13
1. 6차산업화 정책의 개요 ····· 13
2. 6차산업화 관련 정책 현황 ····· 16

제2절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 23
1.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의 개요 ····· 23
2.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현황 ····· 24

제3절 시사점 및 본연구의 관점 ····· 27

제3장 충남6차산업 농업분야 구조분석 ····· 28

제1절 충남 지역 농업 특화 분석 ····· 28
1. 충남 농업 지역 특화분석 ····· 28
2. 지역특화 분석에 따른 함의점 ····· 39

제2절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 ····· 41
1. 연구방법 및 목적 ····· 41
2. 텍스트마이닝 ····· 41
3. 분석자료 ····· 43
4. 분석결과 ····· 44

5. 소결 ····· 49

제3절 6차산업 지역자원 실태분석 ····· 50
1. 조사개요 ····· 50
2.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 50
3. 매출액 및 고용 ····· 54
4. 지역자원의 확대 ····· 60
5. 지역자원의 활용 ····· 62

제4장 농업6차산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및 확대 전략 ····· 65

제1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활용 확대 공통 전략 ····· 65
1. 6차산업화 다변화 정책 방안 모색 ····· 65
2. 정부정책 간 연계강화 및 단계적 발전 정책 ····· 65

제2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확대 전략 ····· 66
1.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정책 ····· 66
2. 6차산업 통합 정책 지원 조직 육성 ····· 67
3.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 ····· 69
4. 농촌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금 정책 ····· 69

제3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활용 전략 ····· 70
1. 규모화와 법인화 유도 ····· 70
2. 포장·디자인 산업 육성 및 시설정비 인력의 양성 ····· 71
3. 지역대학과 연계된 산학연관 시스템 구축 ····· 72
4. 시・군 차원의 6차산업화 계획 수립 ····· 73

제5장 결론 ····· 74

참고문헌 ····· 76

부 록 ····· 78
[부록 1] 6차산업 정책 키워드분석 결과 ····· 79
[부록 2] 6차산업 정책 지역자원 조사표 ····· 82
[부록 3] 기관별 지원유형별 정책사업 ····· 87

표 목 차

<표 1-1> 연구의 흐름 ····· 3
<표 1-2> 어메니티 속성별 분류 ····· 6
<표 1-3> 6차산업에서의 지역자원 ····· 8
<표 2-1>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건수(2016년 9월 기준) ····· 14
<표 2-2> 인증 사업자 사업내용 비교 ····· 14
<표 2-3> 지역단위6차산업시스템 우선지원 대상 현황(2016년) ····· 15
<표 2-4> 6차산업 지원 정책 현황(2016) ····· 17
<표 2-5> 식품 및 비식품 자원별 지원 정책 현황 ····· 18
<표 2-6> 주요 정부기관의 6차산업 정책별 특징 ····· 19
<표 2-7> 충청남도 6차산업화 관련 정책현황 ····· 21
<표 2-8> 충청남도 6차산업 정책별 특징 ····· 22
<표 2-9> 충청남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선정 현황 ····· 22
<표 2-10> 일본 지역별 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건수 ····· 23
<표 2-11> 일본 종합화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비교 ····· 24
<표 2-12> 일본 6차산업화 관련 정책 ····· 25
<표 3-1> 전국 농산물 재배 면적(2010) ····· 28
<표 3-2> 충남 농산물 재배 품목 및 식부면적 ····· 31
<표 3-3> 충남 가축 사육 두수(2010) ····· 33
<표 3-4> 충청남도 농업 특화 분석계수 분석 요약 ····· 36
<표 3-5> 충청남도 농업 특화 계수 분석 결과 ····· 37
<표 3-6>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빈도 분석 ····· 45
<표 3-7> 6차산업 정책 키워드와 지역자원의 연계분석 결과 ····· 48
<표 3-8> 조사대상 업체의 위치 ····· 51
<표 3-9> 조사대상 업체의 설립형태 ····· 52
<표 3-10> 조사대상 업체 대표의 학력 ····· 53
<표 3-11> 조사대상 업체의 부산물 처리방식 ····· 53

<표 3-12> 조사대상 업체의 부산물 재활용 형태 ····· 54
<표 3-13>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기간 및 매출액 ····· 55
<표 3-14> 조사대상 업체의 매출액의 구성 비중 ····· 56
<표 3-15> 조사대상 업체의 고용인원 ····· 57
<표 3-16> 조사대상 업체의 원재료 비중 ····· 58
<표 3-17> 조사대상 업체의 분야별 상품종류 ····· 58
<표 3-18> 조사대상 업체의 생산비용 구성 ····· 59
<표 3-19> 조사대상 업체의 지역자원 확대 ····· 61
<표 3-20> 조사대상 업체의의 지역자원 활용 ····· 64
<표 4-1>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형태 및 경제성과 지표 ····· 68

그 림 목 차

<그림 2-1> 6차산업화 지역단위시스템의 개념 ····· 15
<그림 2-2> 충청남도 6차산업화 모델 ····· 20
<그림 2-3> 2016년도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대책의 개요> ····· 26
<그림 3-1> 텍스트마이닝 프로세스 ····· 42
<그림 3-2>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 ····· 43
<그림 3-1>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80) ····· 46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국내 농업정책의 핵심으로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6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농촌융복합산업법' 일명 6차산업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군·도가 참여하는 6차산업 지원정책들과, 각 시·군의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통한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추진 중이다.

6차산업은 일본에서 시작되어 농가의 고령화, 농가인구감소, 소득감소와 같은 농촌문제를 6차산업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6차산업이란 1차산업인 농산물 생산과, 기타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2차산업인 식품제조가공, 공산품 제조가공을하여, 1차산업 생산주체가 직접 유통·판매하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같은 외부효과와 더불어 농업에서 파생되는 부가가치를 1차 농업 생산자가 가져갈 수 있는 활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는 과거 유통과 제조가공업자 중심의 농산업 구조를 1차산업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에 있고, 또 하나는 농업이라는 것이 과거 단순 생산 활동이라는 것에 전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의 외부효과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산업 형태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유럽도 6차산업과 비슷한 개념으로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 하나의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 중에 있다. 다기능 농업은 농업과 농촌이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2011, VNG[7]; 2013, 정현희 재인용). 다기능 농업은 EU 농업위원회에서 유럽의 공통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e Policy)을 추진하게 되었고 유럽의 각 국가들은 공통농업정책의 분야별 다양한 지원 정책[8]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기능 농업이라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6차산업과 다기능 농업은 농업이 농업 생산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며 매우 포괄적이면서 다차원적인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에서 공

7) Multifunctionele landbouw is als begrip geintroduceerd om aan te geven dat landbouw en landbouwbedrijven meer doen dan landbouwproductie(2011, VNG)

8) 2003년까지 진행된 LEADER프로그램과 직불금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점이 있으며 다만 6차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효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다기능 농업은 농촌 환경과 사회적 활동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서 차이가 있다.

6차산업화 정책은 단순 농업생산 활동이 아니며 농촌의 다양한 1차 자원을 활용하는 매우 다양하고 포괄적인 농업 정책이라는 것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본 정의는 6차산업 정책이 기존의 농업 정책과 달리 농촌사회에서 혹은 지역사회에서 매우 광범위한 정책적 기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또한 6차산업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다면 일반 제조업이 되는 것임으로 지역자원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 6차산업 정책이 농업생산자원과 더불어 다양한 농촌자원이 결합되어 종합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6차산업 지역자원의 확대(expending)'로 정의하여 분석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부가가치의 지역내 창출이라는 정의에 따라 6차산업에 사용되는 자원들이 지역에서 활용되고 있는지를 '6차산업의 지역자원 활용(utilizing)'으로 정의하고 분석하고자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충남 6차산업이 도시와 농촌의 경계를 허물고 포괄적인 농업정책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6차산업 정책을 통해 지역의 자원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표 1-1> 연구의 흐름

1. 지역자원의 정의

1) 지역자원

자원(resources)은 넓은 의미로는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인류의 사회생활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한 원천이며 좁은 의미로는 자연에 의해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장주연, 2015). 자원을 지역의 자원으로 국한하면 지역자원(territorial resources)은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사회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정 관리영역(territory) 내에 존재하는 대상 전부라고 할 수 있다(한경수, 1999; 장주연 2015). 관점에 따라 지역자원은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자연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지역자원은 1차산업에서부터 가공, 유통, 문화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산업영역에 걸쳐 파급효과가 있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根本眞嗣, 2013), 지역자원의 발굴과 활용은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장주연, 2015).

일본의 경우, 효율적인 지역자원관리를 위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역자원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농촌지역자원의 특성을 지역자원의 고정성, 연쇄성, 비시장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고정성은 지역자원은 토지, 물, 산림, 경관 등과 같이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 자원으로 이를 어떻게 보전하고 이용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두 번째 연쇄성 자원은 상호관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역의 생태계 일부가 파괴되면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는 것임으로 이는 상호 연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자원의 활용과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비사장성은 토지, 물, 산림 등의 자연자원을 비롯한 인공시설들은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환경 내에 있기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적절한 이용관리가 어렵다(金子郁容, 2010; 한경수, 1999; 장주연, 2015).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과 지역산업이라는 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지역자원의 개념이 지역의 농업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가공을 위한 시설자원 등에 국한하지 않고, 자원은 연쇄성이 있음으로 보고 역사·문화자원, 기술자원, 산업자원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하고, 지역의 정책들이 농업에 국한하지 않고 확대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자원의 활용(resources utilizing)

‘활용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충분히 잘 이용하다’ 이므로 ‘자원을 활용하다’는 ‘자원을 충분히 잘 이용하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충분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이며, ‘잘’ 의 사전적 의미는 ‘옳고 바르게’, ‘좋고 훌륭하게’ 혹은 ‘익숙하고 능란하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원을 활용하다’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더 풀어서 해석해보면, ‘자원을 모자람 없이 넉넉하게 옳고 바르거나, 좋고 훌륭하거나, 익숙하고 능란하게 이용하다’ 로 볼 수 있다.

위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면, ‘충분히’는 양적인 측면에서 자원을 이용하는 것이고 잘은 자원을 이용하는데 효율과 효과의 측면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볼 때 ‘자원의 활용’은 ‘자원을 양적, 효율 및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지역자원의 활용’은 ‘6차산업 정책을 통해 활용 가능한 자원이 기존 보다 양적으로 증대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6차산업화 추진에 이용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3) 자원 확대(resources expending)

‘확대하다’는 사전적 의미로 ‘모양이나 규모 따위를 더 크게 하다’ 이고 ‘자원을 확대하다’는 ‘자원의 범주(territories)를 더 넓게 확장 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범주’는 사전적 의미로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로 정의되는데 범주를 확대한다는 것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더 넓고 성절이 다른 부류를 포괄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원의 확대’는 ‘지역자원의 개념을 1차 농산물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지역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자 지역의 가능한 모든 자원의 범위를 더 넓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농업과 역사·문화의 결합, 농업과 서비스의 결합, 농업과 나노기술의 결합, 농업과 생명기술의 결합과 같이 농업이라는 범주를 벗어나 새로운 지역자원과의 결합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4) 지역자원의 구분

지역자원은 앞서 정의되었듯이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사회생활을 유지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일정 관리영역(territory) 내에 존재하는 대상 전부라고 할 수 있다(한경수, 1999; 장주

연 2015). 관점에 따라 지역자원은 유형의 자원, 무형의 자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자연자원, 문화자원, 인적자원 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지역의 어메니티자원은 농촌지역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공하는 농촌지역의 유·무형 자원으로 보고 있다(오윤경, 2007). 즉, 지역자원은 좋고 나쁨을 떠나 지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자원을 의미하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에 존재하는 자연경관, 전통문화, 공동체 등의 농촌다움과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정의한다(조순재, 2004)

1997년 최수명외는 농촌지역의 구조재편작업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공간적 범역의 크기에 따라 농촌주민에서부터의 의사결정주체의 위계가 필요하며 농촌마을의 수준에서 제자원을 합리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농촌 지역자원을 토지자원, 자연환경자원, 인문사회환경자원으로 구분하여 자원별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박창석(2002)와 조순재(2003)은 인적기여도에 따라 어메니티 자원을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원생에 가까운 자연적자원,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성된 자원, 인간이 만들어 낸 인공적 자원으로 OECD(1999)에서 분류한 것을 참고하여 어메니티 자원 자연적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으로 대분류하고 8개의 중분류와 37개의 소분류로 구분하였다. 오윤경(2003)은 박창석(2002)와 조순재(2003)의 분류를 자원조사를 위한 용이성을 고려하여 <표1-2>와 같이 분류하였다.

<표 1-2> 어메니티 속성별 분류

대분류	중분류	농촌공익기능 자원 조사 지침서	농촌 어메니티 자원 조사표
자연적자원	환경자원	1.대기질(깨끗한 공기)	환경시설자원
		2.수질(맑은 물)	수자원
		3.소음이 없는 환경	환경시설자원
	자연자원	4.비옥한 토양	지형자원
		5.미기후(계절의 변화, 雲, 안개 등)	지형자원
		6.지형(특이지형, 등산로 등)	지형자원
		7.동물(천연기념물, 보호 및 희귀동물 등)	동물자원
		8.水자원(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	수자원
		9.식생(보호수, 노거수, 마을숲 등)	식물자원
		10.습지 혹은 생물서식지(biotope)	지형자원
문화적자원	역사자원	11.문화재, 사적 등 지정 전통건조물	전통자원

		12.비지정 전통건조물(정자, 사당, 제각 등)	전통자원
		13.신앙공간(성황당, 돌무덤, 당나무 등)	전통자원
		14.전통주택(기와, 너와, 돌기와, 초가 등)	전통자원
		15.마을의 전통적인 요소 (돌담, 흙담 등)	전통자원
		16.마을상징물(마을안내석, 솟대, 장승 등)	전통자원
		17.유명 인물(역사적 인물, 始祖 등)	전통자원
		18.풍수지리나 전설(마을유래, 설화 등)	전통자원
		19.농업경관(다락논, 평야, 밭, 과수원 등)	경관자원
	경관자원	20.하천경관(갈대, 하천, 하천변수림 등)	경관자원
		21.산림경관(산세, 배후 구릉지 등)	경관자원
		22.주거지경관(건축미, 스카이라인 등)	경관자원
		23.공동생활시설(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자원
사회적자원	시설자원	24.기반시설(상수도, 하수도, 공동주차장 등)	시설자원
		25.공공편익시설(구판장, 보건소, 학교 등)	시설자원
		26.환경관리시설(오폐수정화시설, 소각장 등)	시설자원
		27.정보기반시설(인터넷, 마을홈페이지 등)	시설자원
		28.농업시설(공동창고, 집하장, 농배수로 등)	시설자원
		29.도농교류활동(관광농원, 민박 등)	공동체자원
	공동체활동 자원	30.특산물생산(수공예품, 도자기 등)	특산자원
		31.특용작물생산(특용작물, 유기작물 등)	특산자원
		32.생활공동체활동(관혼상제, 친목계 등)	공동체자원
		33.농업공동체활동(품앗이, 판매유통조직 등)	공동체자원
		34.씨족행사(성묘, 제사 등)	공동체자원
		35.마을문화활동(공연, 축제, 전시회 등)	공동체자원
		36.마을놀이(명절놀이, 생산놀이 등)	공동체자원
		37.마을관리 및 홍보활동 (마을정비, 마을홍보, 안내활동)	공동체자원

자료 : 박창석 외(2002)를 오윤경 외(2007)가 재구성

김대식(2007)은 지역자원과,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가지고 기존에 연구된 자원의 평가 분류 문헌을 참고하여 사회적 자원, 자연/문화/역사적 자원 그리고 산업적 자원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상적인 농촌마을의 경우 이러한 세 가지 자원이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이에 대한 평가 기법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에 대한 정의를 산업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까지 고려한 김대식(2007)의 분류체계를 지역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내부 연구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어메니티 자원가치평가에 적용한 정현희(2011)의 분류체계와 같이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역자원에 대한 정의는 추후 6차산업 정책의 범위 확대와 자원 활용에 있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표 1-3> 6차산업에서의 지역자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산업적자원	농사	농업, 논농사, 밭농사, 유기농업
	가축사육	일반 가축(돼지, 소), 특이 가축(사슴, 낙타 등)
	특용작물생산	버섯, 둥굴레차, 등
	시설농업	유리온실, 인삼재배 등
	특산물생산	수공예품, 특산품
	농산가공시설	농산물 1차, 2차 가공시설
	공업시설	농공단지, 각종공장
	판매시설	농산물, 향토음식 판매시설
	인공레저자원	스키장, 골프장, 리조트 등
역사・문화 자원	전통건조물	문화제, 사적, 비석, 유적,
	전통풍습	두레, 향약, 계, 제사, 성묘
	향토음식	전통메주, 메밀국수, 인삼주, 어죽
자연・경관 자원	환경자원	토지, 맑은 공기, 물, 고요함
	경관	특이지형, 농촌경관, 자연경관
	수자원	계곡, 하천, 저수지, 바다
	식물자원	보호수, 특이식물
	동물자원	천연기념물, 조류, 생물다양성
사회적자원	농업시설	집하장, 공동창고
	네트워크기반시설	정보기반, 인터넷 시설, 홈페이지, 도로, 교통수단
	공공시설	상하수도, 오폐수 정화, 소각장, 마을회관, 노인정, 공공 주차장
	숙박시설	민박, 호텔, 전원주택, 실버타운
	공동체활동	관혼상제, 효도잔치, 친목계
	씨족세지풍속	시제, 명절놀이, 생산놀이
	지역문화활동	축제
	체험시설	수련원, 야영장, 전통공예학교
	생산문화활동	농사체험행사
	공동체조직	영농회, 작목반, 주민참여, 지도자

제3절 선행연구 검토

6차산업 정책과 관련해 선행연구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병오(2015)는 "6차산업화 정책의 점검과 과제"에서 네 가지 이론적 관점에서(내생적 발전론, 경영 다각화 및 융복합, 경영 혁신론, 네트워크론) 6차산업화를 검토하고 관련법률 및 6차산업 추진체계를 분석하였으며, 정책의 전개방향을 제시하기에 앞서 한국과 일본의 6차산업 사업유형, 원료, 경영주체별로 비중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부존자원이 잘 활용되도록 유도하고, 농가나 법인, 지역이 연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면서, 농업인 스스로가 작더라도 참신한 혁신 아이디어를 내서 차별화된 신제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핵심부문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6차산업의 정책방향은 가치혁신을 추구해야 하며 가치혁신은 국가와 농가의 협력을 통한 투트랙(two-track) 시스템으로 가치혁신 추구가 바람직하고 중앙정부차원의 전문가 컨설팅 지원이 농가의 가치혁신을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며, 농가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비즈니스의 원천임을 주장하였다.

김주미 외(2015)는 "농어촌 벤처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에서 국내 및 해외의 농어촌 벤처 실태를 조사하고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농업벤처의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농어업 벤처에 대한 장기적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고 농어업 과학 연구 및 농업 관련 첨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술 농업의 활성화와 귀농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박정일 외(2015)는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에서 AHP분석을 이용하여 6차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정책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사업별로는 1차, 2차, 3차 산업을 고르게 육성하되 2차 가공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여 정책 사업의 효과를 높일 필요성 제기하였다. 사업 시행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 전문가 그룹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농식품부가 주도하고 타 기관들이 협력하는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다.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을 선택(현행 방식)한 다음 이를 장기간동안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하였고 정책의 지원기간, 지원사업의 초점, 현장애로 해결, 자부담 비중, 사업구조에 대한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조록환 외(2013)는 “농업, 농촌 6차산업 정책 요구 분석”을 통해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농촌체험마을, 향토산업육성사업단, 생산자단체,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단 등 223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6차산업화의 장애요인과 6차산업에 대한 인지 및 필요성에 대하여 5점 척도 조사를 통해 농업·농촌 6차 산업화 추진 장애요인으로 원활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 6차 산업 참여 주체간 연대 및 협력, 그리고 생산 제품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체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및 유통, 마케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6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서 정책 자금지원 확대, 생산품판로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아 소규모 경영체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로컬푸드 시스템, 지역 경영체 간의 연합 마케팅, 개별 경영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병오(2013)는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과 시사점”에서 일본의 6차산업 개념 및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소개하였는데, 일본의 6차산업 정책은 경영규모가 큰 경영체들이 정책 대상의 중심에 있고 6차 산업화의 중심 대상이 농산가공과 판매 등 직접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아이템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산지소가 농산물 직판장으로 보는 사고방식에서 뛰어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튼튼한 농업과 자립심 강한 농업인이 출발점 이어야하고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농촌의 공동체 기능을 복원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을 제시하였다.

이금동(2015)은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에서 일본의 6차산업과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련 정책에 대해 소개하면서 일본의 6차산업 정책을 비판하였는데, 일본은 6차산업 유사정책에서 경험 및 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성장제일주의 지향하고 있으며, 정책의 사업내용이 가공 및 직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유학열 외(2014)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농업전망 2014에서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라는 주제로 발표문에서 국내 및 충남도의 6차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기 위해 인식확대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 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지원되어야 하며, 소규모 경영체 맞춤형 유통 및 마케팅 전략제시하고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6차산업화의 영역이 확대되어야 하고 관련 주체와의 연계 및 시설이 적극적으로 활용

되어야 하며, 1차 산업의 지속적 육성됨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반기민 외(2013)는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에서 증평군의 작목반 및 농업경영체 47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지역의 작목반 혹은 경영조직체들의 전후방 연계가 미흡하고 가공 유형 및 출하방식 등이 다양하지 않았고 증평군의 6차산업에 있어 문제점으로 영세한 운영 주체 및 비 표준화된 제품이 생산되고 있고 노동력 확보의 곤란한 상황이며, 유통구조의 취약성 및 지역 내의 전후방 연계의 취약함을 제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 논리를 적용한 공공급식 로컬푸드 지원단을 설치하고 커뮤니티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직거래와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김성훈 외(2014)는 “6차 산업화 관련 정책산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6차산업 관련 산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사업간 조정을 통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고 하드웨어 구축 등 단순 사업을 지양하고 맞춤형 사업을 강화해야 하며, 사업의 성과지표와 사후관리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시사하였다.

김경찬 외(2015)는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 정책 비교 연구”에서 일본과 한국의 6차산업 정책 및 세부사업 별로 비교분석하였는데, 한국의 6차산업 정책 및 세부사업 은 일본과 유사하지만 한국의 인증제도는 예비 인증시 자격 중심적인 인증제의 성격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의 인정사업자 육성사례처럼 인증사업자를 건강히 키움으로서 농식품산업 전체 규모가 동반 성장할 수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실질적 추진단계에서 일본 서포트 센터의 다양한 플래너 활용정책을 본받을 필요가 있으며, 일본이 전국 47개 도도부현에 50개의 지역단위 서포트 센터를 설치하는 등 밀도 있는 센터 접근성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 향후 적절한 지역단위 지원센터의 밀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6차산업 정책관련 연구성과가 많지 않았다. 국내 6차산업 정책의 도입 및 추진이 최신이다 보니, 6차산업에 대하여 소개하고 정책에 대하여 안내하는 등의 연구결과가 대부분이며, 전부 국내 6차산업 정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었다. 6차산업 정책은 필요하고 저자마다 각자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6차산업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추진방향 또한 지역을 기점으로 6차산업화가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고 중간지원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았다.

본 연구는 6차산업 지역자원의 지역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일부 이병오(2013)의 선행연구 전후방연계가 부족하고 지역자원의 활용 부분이 한정적임을 시사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에서의 지역자원의 개념과 지역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기초자료와 설문조사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농촌의 자원간 연계성 확대를 통한 6차산업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2장 6차산업 국내외 정책 동향

제1절 국내 6차산업화 정책

1. 6차산업화 정책의 개요

2013년 7월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화 종합대책」의 발표를 통해 6차산업화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을 첫째, 함께하는 우리 농촌 운동과 연계를 통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6차산업화 모델 확산, 둘째, 농촌의 인적역량을 귀농ㆍ귀촌, 재능기부 등 외부전문가로 보완, 셋째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세부전략으로 사업초기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하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네트워크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6차산업화 추진을 위한 법적인 기반은 2014년 5월 "농촌융복합산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련되었으며, 1년간의 공포기간을 거쳐 2015년 6월 4일 시행되었다. 본 법률에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의 정의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법률 1장 2조).

본 법률의 제정 목적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이다(법률 1장 1조).

주요내용으로 6차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 및 시·군의 농촌융복합산업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ㆍ관리,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 중간지원조직 지정,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등 총 6개의 장과 43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국 9개의 도 단위 광역지자체에 중간지원조직인(6차산업화지원센터)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주요 사업으로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즉, 6차산업화 인증 및 사후관리 6차산업화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판매

플랫폼구축,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6년 9월 30일까지 총 960개소의 6차산업화 사업자가 <표2-1>과 같이 인증 되었으며 이중 92%가 <표2-2>와 같이 농식품 가공을 사업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표 2-1> 지역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 건수(2016년 9월 기준)

구분	인증 건수	1*2*3차산업형 (융복합형)	1*2차산업형 (가공형)	1*3차산업형 (체험형)
합 계	960	804	79	77
강원도	114	80	18	16
경기도	108	80	10	18
충청북도	92	78	9	5
충청남도	75	68	3	4
전라북도	144	124	9	11
전라남도	142	124	13	5
경상남도	98	87	5	6
경상북도	101	91	6	4
제주도	59	49	5	5
대구시	1	1	-	-
대전시	4	3	-	1
세종시	12	11	-	1
울산시	2	2	-	-
인천시	8	6	1	1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재구성_2016년 9월

<표 2-2> 인증 사업자 사업내용 비교

사업내용	비율(%)	비고
1*2*3차산업형(융복합형)	83.8	
1*2차산업형(가공형)	8.2	
1*3차산업형(체험형)	8.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재구성_2016년 9월

2016년 “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의 발표를 통해 그동안 개별 농가의 농외소득 위주로 추진해 온 6차산업을 농산물 생산 · 가공 · 유통 및 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경영체 육성을 통해 농업 내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상생협력도 적극 추진하여 성과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첫째, 농산물 생산 첨단전문화(스마트팜 보급, 들녘 경영체 및 밭작물 공동체 확대 등), 둘째, 제조 · 가공 및 식품산업 활성화(식품 · 외식업체 등의 국산 농산물 사용 확대), 셋째, 유통효율화 및 수출 확대(로컬푸드직매장 확대, 직거래 확대 및 대 중국 김치수출 확대), 넷째, 내외국인 농촌관광 활성화(외국인 관광개 유치, 자유학기제 연계 등)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6차산업화 시스템구축 지원 대상 77개소 후보품목 중 26개 개소를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그림 2-1> 6차산업화 지역단위시스템의 개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6)_농업 6차산업화를 통한 농촌경제 및 수출 활성화 방안

<표 2-3> 지역단위6차산업시스템 우선지원 대상 현황(2016년)

구분	개수	지역 및 품목
경기	3	· 김포(새싹인삼+가공) · 양평(쌀가공식품) · 이천(쌀밥)
강원	3	· 평창(약콩+두유) · 양구(시래기) · 영월(장류)
충북	2	· 음성(들깨) · 충주(당뇨바이오)
충남	5	· 천안(호두과자) · 논산(딸기) · 당진(쌀) · 보령 (돼지) · 금산(깻잎)
전북	4	· 고창(복분자) · 완주(로컬푸드) · 임실(치즈) · 정읍(귀리)
전남	5	· 장성(컬러푸드) · 고흥(유자) · 여수(약쑥) · 진도(울금) · 보성(녹차)
경북	3	· 성주(참외) · 안동(마) · 북부지역(사과)
경남	1	· 산청(딸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2016)

2. 6차산업화 관련 정책 현황

1)중앙단위 6차산업화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4년 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을 발행하였으며 6차산업 홈페이지(6차산업.com)를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 및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각 기관의 정책 사업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표2-4>는 6차산업.com의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단위에서 6차산업화를 지원하는 관련 정책들을 조사하여 재구성한 결과로 6차산업 추진의 핵심사업인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 현장코칭, 안테나숍 운영, 유통플랫폼 구축 등 6차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것으로 일부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집계하였다. 지원정책의 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전체 183개 지원정책 중 51개로 27.9%를 차지하고 있다.

6차산업의 활성화를 주도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지원정책의 13.1%인 24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6차산업 주관 부서인 농촌산업과는 10개의 사업만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교육, 수출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6차산업 추구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있음을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6차산업 지원정책으로 보기에 어려운 것도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청과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6차산업 지원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사업의 목적이 상공업 육성을 추구하고 대상의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며, 일정 교육 또는 과정을 이수한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6차산업과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2-4> 6차산업 지원 정책 현황(2016)

지원유형 / 주관기관	금융지원	컨설팅	교육	수출지원	연구개발	출원인증및평가	사업및시설지원	마케팅•브랜드•디자인	체험•관광	지역개발	합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11	5	15			1	13	2		51
중소기업청	5	12	3		11	1		1			33
농림축산식품부	1	2				8	5	2	3	3	2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	1				2	3	1	2		10
농협중앙회	9							3	3		1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1		5	3		1			12
한국발명진흥회					3	2		4			9
산림청		1	1				2		3	1	8
농촌진흥청							3		2		5
한국농어촌공사			1					1	3		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					1			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4						4
한국식품연구원		3			1						4
한국마사회			1	1					1		3
산림조합중앙회	1			1							2
한국식품산업협회				2							2
농업정책자금관리단	1										1
식품의약안전처						1					1
합계	21	31	15	19	24	15	11	26	17	4	18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_2014(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www.6차산업.com 자료 재구성(2016. 8 기준)

또한 <표2-5>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6차산업 지원정책에서 육성목적으로 하는 자원을 식품과 비식품 그리고 식품+비식품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것으로 식품에는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이 포함되고 비식품은 식품자원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자연, 사회, 문화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결과, 전체 지원 사업 183개 중 162개인 88.5%는 식품 자원에 대한 육성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식품은 6개, 식품+비식품은 15개로 나타났다. 비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5개가 산림청 사업, 1개는 농식품부 사업으로 비식품 자원 중 자연(숲, 경관 등)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식품+비식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체험/관광 부분과 관련된 사업이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하는 6차산업 지원정책은 식품자원 육성 위주의 사업이며, 비식품자원에 대한 육성은 경관 및 체험/관광 일부에만 국한되어있고 정책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식품 및 비식품 자원별 지원 정책 현황

자원 유형	식품	비식품	식품+비식품	합계
금융지원	20	1		21
컨설팅	30	1		31
교육	13		2	15
수출지원	19			19
연구개발	24			24
출원 인증 및 평가	14		1	15
사업 및 시설지원	10	1		11
마케팅/브랜드/디자인	26			26
체험/관광	6	2	9	17
지역개발		1	3	4
합계	162	6	15	183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_2014(6차산업화 지원정책 매뉴얼), www.6차산업.com 자료 재구성(2016. 8 기준)

한편,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_2014년)에 의하면 위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농식품 제조 및 가공분야

(2차 산업) 중심형, 유통 및 관광분야(3차산업) 중심형 그리고 1차×2차×3차 산업(융복합산업) 중심형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2차 산업 중심의 지원 사업이 6개 사업, 3차 산업 중심이 11개 사업, 융복합 중심형 사업이 8개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별 지원 대상 즉 경영주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개별 경영체 단위 지원이 10개 사업, 지역 공동체 단위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표2-6>과 같이 나타났다.

<표 2-6> 주요 정부기관의 6차산업 정책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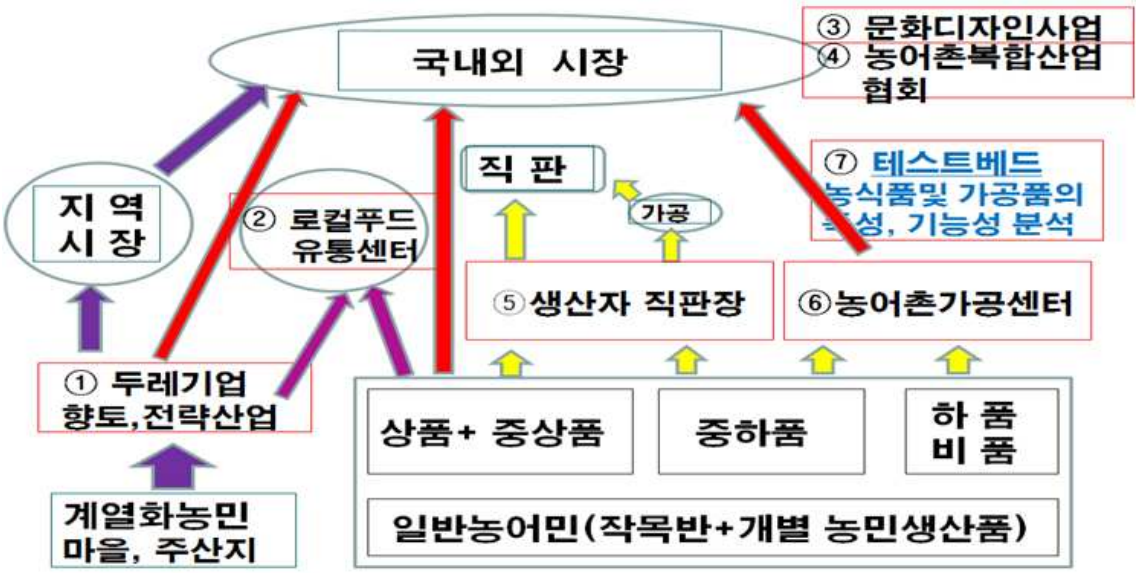
주도산업	경영주체	주관부처	관련정책	공간	목적	지원 단계
2차산업 (제조/가공)	경영체	농식품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시/군	지역지원을 활용한융복합	창업/성장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전국	농공상 연대 및 협력을 통한 성장	성장단계
		농진청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전국	소규모 창업 시 시제품 개발	창업단계
		산림청	산림(임산물)가공지원	시/군	설비지원	창업/성장
3차산업 (유통/관광)	경영체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시/군	관광자원화	성장단계
			농촌민박	마을	숙박시설지원	창업단계
			로컬푸드매장	시/군	유통시설지원	창업단계
		농진청	농가맛집	시/군	교육활동지원	창업단계
			교육농장	시/군	음식관광지원	창업단계
	지역 공동체	농식품부	농촌체험마을	마을	농촌체험지원	창업단계
			우수외식업지구	시/군	음식관광지원	성장단계
			말산업육성	시/군	말산업과 농촌관광	창업단계
			농촌테마공원	시/군	농촌관광	성장단계
		산림청	치유의 숲	시/군	산림관광	창업단계
			자연휴양림	시/군	산림관광	창업단계
1차×2차×3차 융복합	경영체	농식품부	농촌공동체 회사	마을	지역주도의 지역자원 활용	성장단계
	지역 공동체	농식품부	6차산업화지구	시/군	융복합화	성장단계
			행복생활권연계사업	시/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성장
			향토산업육성사업	시/군	지역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성장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시/군	지역농림수산물을 활용한 융복합	창업/성장
			일반농산어촌개발 (소득사업)	시/군	농특산물 융복합	창업단계
		농진청	6차산업수익모델사업	시/군	특화농업 기반	창업단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시/군	융복합화 및 기술과 기반조성	성장단계

자료 :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2) 충청남도 6차산업화 정책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정책은 2010년 민선 5기 도정 출범과 함께 농정의 핵심 사업으로 3농혁신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2년 농어업6차산업화 확대·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충청남도가 주도하는 농어촌복합산업화사업계획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받아 광역특별회계 501억을 포함 총 1,00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비와 시·군비로만 추진하던 농어업6차산업화 마을기업 창업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목표로 하고 <그림2-2>와 같이 추진하고 있다.

<그림 2-2> 충청남도 6차산업화 모델



자료 : 충청남도_2013년(충청남도의 농어업6차산업화 정책)

또한 2011년에는 6차산업화 중간지원조직으로 충남연구원 내 농어업6차산업화센터를 설치하여 6차산업화 확산 및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의 6차 산업화 주요 시책은 <표2-7>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 16개 사업으로 시설지원 6개 사업, 체험관광 지원 5개 사업, 마케팅지원 4개 사업, 컨설팅 1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충남의 대표적인 6차산업화 시책사업인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자원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와 마을 내 여성 및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지원사업과 지역 내 농산물 활용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단위 농식품 우량기업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이 사업으로 2015년 12월까지 총 36개소를 선정하였으며, 마을단위 두레기업 창업 28개소, 지역단위 농식품 우량기업 8개소가 육성되었다. 기타 농식품생산자직판장 구축,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육성 사업 등의 시설지원 사업과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 우수제품 판촉지원 등의 마케팅 및 판로지원 사업 과 체험·휴양마을지원 사업 등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지원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창업단계 지원 4개 사업과 창업 및 성장단계 지원 1개 사업, 성장단계 지원11개 사업으로 <표2-8>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2-7> 충청남도 6차산업화 관련 정책현황

지원분야 지원기관	**합계**	금융	컨설팅	교육	수출	R&D	인증	시설지원	마케팅	체험관광	지역개발
충청남도 (농업정책과)	**16**	-	1	-	-	-	-	6	4	**5**	-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구성(2016)

<표 2-8> 충청남도 6차산업 정책별 특징

주도산업	경영주체	주관부처	관련정책	공간	목적	지원 단계
2차산업 (제조/가공)	경영체	충청남도	지역단위 농식품 우량기업육성	시/군	시설	성장단계
			전통주 및 발효식품 육성	시/군	시설	성장단계
			향토총각무 육성사업	시/군	시설	창업단계
			생강마을 제조·가공센터 조성	시/군	시설	창업단계
3차산업 (유통/관광)	경영체	충청남도	6차산업제품 판로지원	도	마케팅	성장단계
			유통업체 판매플렛홈 구축	도	마케팅	성장단계
		6차산업센터	현장코칭	도	컨설팅	창업/성장
			안테나숍운영	도	마케팅	성장단계
	지역 공동체	충청남도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구축	시/군	시설	창업단계
			고향마실 페스티벌	도	체험광광	성장단계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시/군	체험광광	성장단계
			철도관광객 유치협력	도	체험광광	성장단계
			학교로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	도	체험광광	성장단계
			농어촌체험마을 홍보행사	도	체험광광	성장단계
			농식품문화디자인사업	시/군	마케팅	성장단계
1차×2차×3차 융복합	지역 공동체	충청남도	마을단위 농식품 기업 창업(두레기업)	시/군	시설	창업단계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구성(2016)

<표 2-9> 충청남도 6차산업화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 선정 현황

년도별	창업 및 육성현황(개소)			자원	비고
	계	두레기업	우량기업		
계	**36**	28	8	농식품	가공/체험/농가맛집/직판장
2012년도	**6**	6	-		
2013년도	**11**	7	4		
2014년도	**8**	6	2		
2015년도	**11**	9	2		

자료 : 충청남도 내부자료 재구성(2016)

제2절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1.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의 개요

일본은 2010년 12월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의 신사업 창출 및 지역농림수산물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명 6차산업화・지산지소법을 공표하여 2011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어업자등에 의한 신사업의 창출 등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및 그들이 조직하는 단체(농어민이 주된 구성원 또는 출자자가 있는 법인 포함)가 주체적으로 할 신사업 창 등의 노력을 지원하기위해 제정되었다.

지원방향은 경영 발전단계를 생산기반 확립단계, 6차산업화 도입단계, 사업 확대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지원체계 도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다. 즉, 농업경영의 초기단계에 보조금과 융자를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확립한 다음 6차산업화 종합사업계획을 인정하고 다양한 시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 6차산업화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면, 농림어업 성장펀드를 지원하여 사업이 확장되도록 경영발전을 지원하는 것이다(이유경_2014). 즉,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에는 1차 농수산물의 생산단계 지원과 어민의 참여와 수산물 자원의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2-10> 일본 지역별 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건수

지역별/자원별	종합화사업계획	농특산물	임산물	수산물
합계	2,156	1,899	95	162
북해도	123	115	4	4
동북	335	305	11	19
관동	363	328	17	18
호쿠리쿠	107	102	1	4
도키이	186	161	13	12
킨키	363	331	11	21
쥬코쿠시코쿠	250	200	11	39
큐슈	375	307	26	42
오키나와	54	50	1	3

자료 :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_2016. 일본 농림수산성

2016년 농림수산성 자료에 따르면 종합화사업계획의 인정상황은 3월 31일 기준 총 2,156개가 인증되었으며, 국내 농특산물 관계 분야 1,899개, 국내 임산물 관계 분야 95개, 국내 수산물

관계 분야 162개로 <표2-10>과 같이 나타났다. 이들을 사업별로 보면 가공 20%, 직판 2.6%, 수출, 0.3%, 레스토랑 0.2%, 가공/직판형 68.7%, 가공/직판/레스토랑 형이 6.5%, 가공/직판/수출 형이 1.6% 인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의 흐름이 농식품의 가공 및 판매에 집중되고 있다.

<표 2-11> 일본 종합화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비교

사업내용	비율(%)	비고
가공	20.0	
직판	2.60	
수출	0.30	
레스토랑	0.20	
가공/직판	68.8	
가공/직판/레스토랑	6.50	
가공/직판/수출	1.60	

자료 :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_2016. 일본 농림수산성

2.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 현황

일본의 6차산업화 정책은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농림어업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농림어업자 등이 실시하는 종합화사업에 대한 계획을 인정하고 각종 법률의 특례대상으로 함으로써 지원한다. 이밖에도 일본 도도부현에 6차산업서포트센터를 설치하여 보조금과 농림어업 성장산업화펀드 등을 출자하고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6차산업화 플래너의 파견이나 6차산업화네트워크 활동 교부금,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 등으로 신상품개발과 가공ㆍ판매시설 등의 정비 등을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농지개량자금융통업 등을 통한 융자금 상황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농지법, 도시계획법 등을 통한 직판장 개설시 농지전용절차를 간소화 등과 종묘법,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 등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농림어업성장산업화펀드를 조성하고 농림어업성장펀드지원기구 설립하여 서브펀드를 통해 6차산업화 종합화사업계획 인정사업자에게 출자하도록 하고 있다(김응규, 2014).

2016년 일본 농림수산성의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자료에 따르면 6차산업화 정책을 크게 6차산업화 네트워크구축 활동 교부금, 지역 모두의 6차산업화 지원, 6차산업화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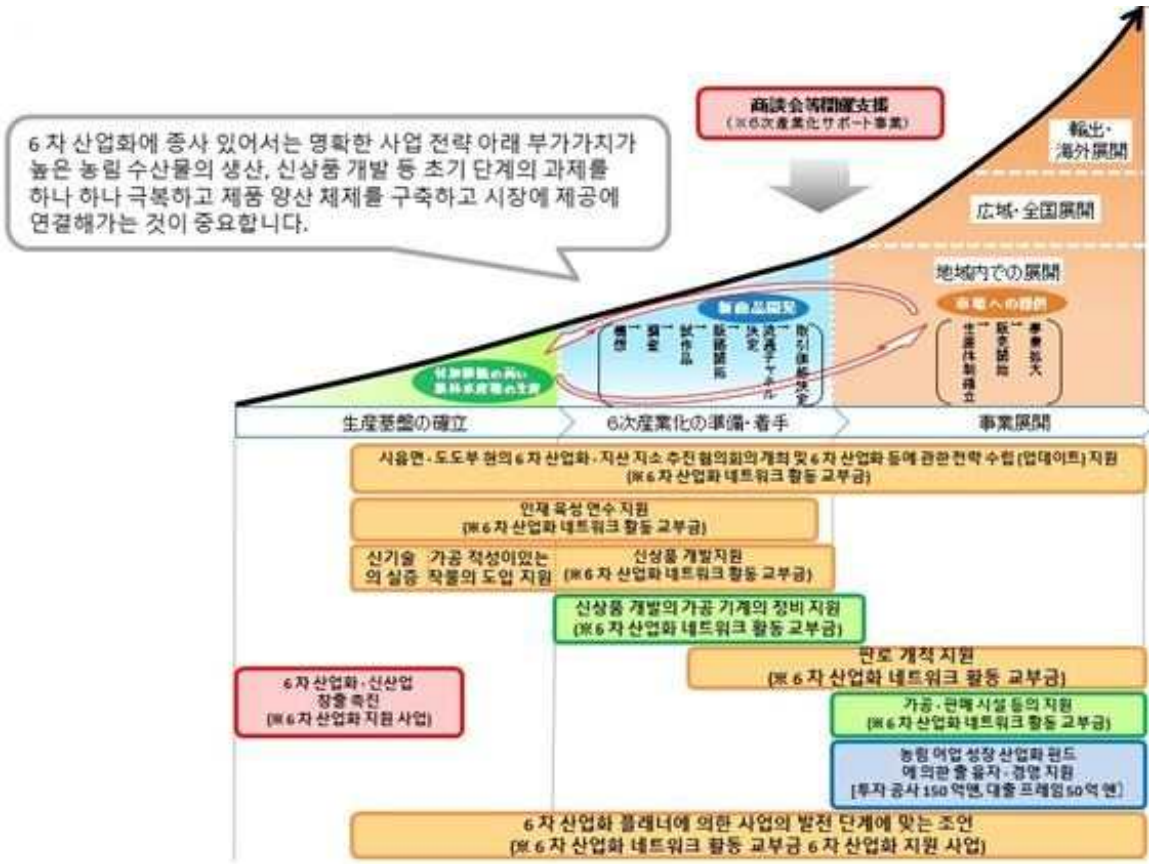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구축 활동 교부금 지원에 3개 사업, 지역 모두의 6차산업화 지원에 5개 사업, 6차산업화 지원 사업에 9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12>에서 볼 수 있듯이 6차산업 지원정책의 핵심이 사업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표 2-12> 일본 6차산업화 관련 정책

지원 분야	사업내용	지원 단계
6차산업 네트워크구축 활동 교부금	6차산업화 등에 관한 전략 수립	도입단계
	농림어업자 등에 의한 6차산업화 추진	확대단계
	6차산업화에 임하는 인재육성	도입단계
지역 모두의 6차산업화 추진 지원	시/정/촌의 6차산업화 등에 관한 전략에 따라 시/정/촌 등이 지역모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재료비, 성분 분석 등 검사비 등 지원	확대단계
	지자체 등(6차산업화·지산지소 법에 따라 인증된 촉진사업자를 포함)이 지역 모두에서 신상품 개발을 위한 가공 기계 등의 정비 지원	확대단계
	시/정/촌 전략에 따라 자원을 활용한 신상품 개발 등을 추진 지역 모두의 6차산업화 활동지원	확대단계
	시/정/촌의 6차산업화·지산지소 추진협의회에서 직매소 관계자 및 관광사업자 등이 참여하고 직매소의 매출 향상을 위한 노력과 목표 등을 수립 한 후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	확대단계
	시/정/촌의 6차산업화·지산지소 추진협의회에서 지역상품의 식품사업자와 대학·개호시설 등의 관계자가 참가하여 스마일케어 다이어트(새로운 개호식품)의 개발 등의 활동 방침과 목표 등을 수립한 후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	확대단계
6차산업화 지원 사업	6차산업화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자 등에 대한 개별 상담	도입단계
	농림어업자 등으로 유통업체 등과의 상담회 지원	도입단계
	6차산업화 네트워크 활동의 적극적인 추진	확대단계
	6차산업화 정보제공 지원	확대단계
	사업화 가능성조사	도입단계
	6차산업화 촉진기술대책	확대단계
	식재료 개척 박람회 등의 개최	확대단계
	국산 식자재 이용정보 제공	확대단계
	지역산 재료를 활용한 영양 개선 등의 대책 추진	확대단계

자료 :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_2016. 농림수산성

<그림 2-3> 2016년도 일본의 6차산업화 지원대책의 개요>



자료 : 농림어업의 6차산업화의 전개_2016. 농림수산성

제3절 시사점 및 본연구의 관점

농촌융복합산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6차산업화법) 제2조에는 '농업인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지역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 · 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본 장에서 정리한 국내 6차산업의 현황 북석에 따라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6차산업화 정잭지원 매뉴얼 및 농식품부 6차산업.com의 자료에 의하면 중앙단위 17개 지원기관에서 183개의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요 부처의 시책사업들이 2차 식품 제조가공 산업 중심형과 2차×3차 융복합산업형 등 농식품의 제조 · 가공 육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 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농산물 제조·가공 경영체의 무분별한 육성이 차별화되지 못한 상품 생산으로 이어지고 경영체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본도 식품 가공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나, 6차산업화 종합사업화계획을 인증하여 신규(신사업) 상품개발 등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만을 인증하고 집중육성 하는 부분과, 어촌 및 수산자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운영되는데 차이가 있다.

둘째로 농식품부 중앙단위 6차산업 사업들은 농촌진흥청, 농업유통공사 등 기관별 시행부서에서 관련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으나, 사업간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비슷한 사업의 난립 사업간의 연계 등 시너지 창출이 미흡하다.

셋째 전체 지원 사업 183개 중 88.5%애 해당하는 162개 사업이 식품 자원에 대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비식품자원에 대한 육성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경관 및 체험/관광 일부에만 국한되어있고 정책 비중이 매우 낮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6차산업화 정책이 신규 창업자나, 도입단계 보다는 성장단계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어 추후 정책지원이 없을 경우 경쟁력이 약한 경영체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제3장 충남6차산업 농업분야 구조분석

제1절 충남 지역 농업 특화 분석

1. 충남 농업 지역 특화분석

1)충남 농업 식부면적

충남 전체 작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통계청(MDIS)[9]에서 제공되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통계청(kosis)에서도 읍면단위로 식부면적이 제공되고 있으나 시·군 단위 혹은 도 단위 분석을 위해서 자료정규화가 필요하고, 전체 작목이 아닌 식부면적 상위 작목별로 제공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이 전국과 충남 시·군 전체의 특화계수를 추출하는데 한계가 있어 정확한 분석을 위해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표 3-1>전국 농산물 재배 면적(2010)

단위 : ha, %

순위	품목	충남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1	논벼	139,439 (17.7)	95,213 (12.1)	38,247 (4.8)	44,255 (5.6)	127,407 (16.1)	157,423 (20)	111,356 (14.1)	75,622(9.6)	26(0)	788,993
2	밤	11,628 (44.4)	251(1)	212(0.8)	1,394 (5.3)	823(3.1)	3,863 (14.7)	140(0.5)	7,883(30.1)	3(0.01)	26,203
3	기타노지 작물	5,469 (12.9)	2,846(6.7)	3,137(7.4)	3,268 (7.7)	5,457(12.9)	9,763(23)	5,547(13.1)	2,874(6.8)	4,097(9.65)	42,463
4	콩	5,424(9.4)	6,545(11.4)	6,986(12.2)	6,825(11.9)	3,546(6.2)	8,412(14.6)	9,617(16.7)	3,278(5.7)	6,850(11.92)	57,486
5	고추	5,153(12.3)	3,609(8.6)	4,163(9.9)	4,221(10.1)	5,983(14.3)	6,524(15.5)	10,348(24.7)	1,908(4.5)	67(0.16)	41,980
6	고구마	3,857(17.7)	4,440(20.3)	859(3.9)	1,108(5.1)	3,370(15.4)	4,867(22.3)	1,710(7.8)	1,466(6.7)	150(0.69)	21,832
7	인삼	3,427(21.3)	2,680(16.7)	2,222(13.8)	3,270(20.3)	2,776(17.2)	775(4.8)	893(5.6)	49(0.3)	4(0.03)	16,100
8	신고	3,110(24.9)	2,767(22.2)	180(1.4)	518(4.2)	671(5.4)	3,069(24.6)	1,462(11.7)	689(5.5)	0(0)	12,469

9) https://mdis.kostat.go.kr/index.do

9	수박	2,608(26.5)	94(1)	83(0.9)	1,347(13.7)	1,097(11.2)	600(6.1)	1,075(10.9)	2,921 (29.7)	2(0.02)	9,832
10	마늘	2,552(12.7)	434(2.2)	247(1.2)	436(2.2)	607(3)	5,793 (28.9)	2,827(14.1)	3,857(19.2)	3,287(16.4)	20,044
11	들깨	2,514(19.4)	2,692(20.7)	2,856(22)	1,978(15.2)	1,055(8.1)	513(4)	932(7.2)	439(3.4)	8(0.06)	12,991
12	배추	2,368(8.7)	2,030(7.5)	6,973(25.7)	1,919(7.1)	2,233(8.2)	7,712 (28.5)	2,390(8.8)	1,043(3.9)	410(1.52)	27,082
13	감자	2,278(10.7)	1,723(8.1)	6,560(30.9)	1,277(6)	1,569(7.4)	1,893(8.9)	2,356(11.1)	1,144(5.4)	2,410(11.36)	21,216
14	기타식량 작물 (밭벼포함)	1,831(6.9)	1,970(7.4)	2,080(7.9)	1,586(6)	2,947(11.1)	8,596 (32.5)	1,801(6.8)	2,774(10.5)	2,878(10.88)	26,468
15	기타시설 작물	1,816(15.1)	4,350(36.2)	185(1.5)	388(3.2)	1,267(10.5)	1,020(8.5)	1,167(9.7)	1,756(14.6)	70(0.58)	12,022
16	논벼 (친환경)	1,808(5.3)	2,666(7.8)	1,318(3.9)	2,195(6.5)	2,418(7.1)	16,756 (49.3)	4,045(11.9)	2,780(8.2)	1(0)	33,990
17	조경수	1,722(11.8)	1,794(12.3)	603(4.1)	1,010(6.9)	4,069(27.9)	2,237(15.3)	851(5.8)	1,522(10.4)	783(5.37)	14,598
18	후지 (부사)	1,598(7.1)	300(1.3)	215(1)	2,758(12.2)	848(3.8)	172(0.8)	14,582(64.5)	2,113(9.4)	1(0.01)	22,592
19	딸기	1,170(25.1)	48(1)	37(0.8)	74(1.6)	386(8.3)	652(14)	385(8.2)	1,892(40.5)	22(0.48)	4,670
20	무	1,158(7.6)	1,035(6.8)	2,664(17.5)	567(3.7)	1,581(10.4)	1,284(8.4)	886(5.8)	334(2.2)	5,741(37.64)	15,255
21	기타 (친환경)	1,047(9.1)	553(4.8)	755(6.5)	492(4.3)	765(6.6)	4,230(36.7)	1,128(9.8)	1,946(16.9)	618(5.36)	11,539
22	참깨	876(8.4)	776(7.4)	323(3.1)	1,079(10.3)	1,016(9.7)	3,126(29.8)	2,151(20.5)	609(5.8)	524(5)	10,484
23	토마토	866(24.2)	319(8.9)	611(17.1)	190(5.3)	268(7.5)	474(13.2)	450(12.6)	353(9.9)	46(1.29)	3,581
24	거봉	665(29.5)	211(9.4)	7(0.3)	35(1.6)	13(0.6)	12(0.6)	1,296(57.6)	8(0.4)	0(0.01)	2,251
25	삼나물 (노지)	638(93.8)	0(0)	0(0)	0(0)	0(0)	0(0)	42(6.2)	0(0)	0(0)	681
26	상추	602(17.1)	1,513(43.1)	80(2.3)	284(8.1)	480(13.7)	62(1.8)	169(4.8)	304(8.7)	15(0.44)	3,515
27	오이	591(21.8)	522(19.3)	396(14.6)	174(6.4)	103(3.8)	238(8.8)	425(15.7)	232(8.6)	30(1.11)	2,715
28	고추	590(13.8)	398(9.3)	432(10.1)	104(2.4)	261(6.1)	647(15.2)	354(8.3)	1,477(34.6)	6(0.15)	4,274
29	캠벨얼리	538(5.9)	2,057(22.5)	199(2.2)	1,348(14.7)	472(5.2)	146(1.6)	4,093(44.7)	301(3.3)	0(0)	9,158
30	채소 (친환경)	499(7.1)	860(12.3)	494(7.1)	485(6.9)	289(4.1)	2,392(34.2)	1,005(14.4)	736(10.5)	240(3.44)	7,004

31	쪽파(시설)	478(100)	0(0)	0(0)	0(0)	0(0)	0(0)	0(0)	0(0)	0(0)	479
32	옥수수	434(3.5)	1,254(10.2)	5,697(46.5)	2,428(19.8)	462(3.8)	817(6.7)	740(6)	395(3.2)	34(0.28)	12,266
33	배추	397(19.7)	822(40.8)	52(2.6)	116(5.8)	169(8.4)	146(7.3)	1,91(9.5)	116(5.8)	4(0.21)	2,016
34	양파	378(2.3)	61(0.4)	67(0.4)	64(0.4)	873(5.4)	8,463(52.2)	1,949(12)	3,159(19.5)	1,192(7.36)	16,211
35	기타약용작물	371(6.6)	308(5.5)	1,007(17.8)	775(13.7)	339(6)	680(12)	1,506(26.7)	577(10.2)	85(1.51)	5,651
36	양배추	368(9.5)	46(1.2)	811(20.9)	92(2.4)	49(1.3)	506(13)	253(6.5)	16(0.4)	1,743(44.85)	3,887
37	매실	360(5.1)	495(7)	138(2)	229(3.3)	555(7.9)	2,929(41.5)	478(6.8)	1,782(25.3)	84(1.19)	7,054
38	대파	337(5.3)	957(15.1)	374(5.9)	269(4.2)	520(8.2)	3,098(48.8)	375(5.9)	226(3.6)	183(2.9)	6,344
39	땅콩	335(13.9)	248(10.3)	49(2.1)	215(8.9)	847(35)	120(5)	428(17.7)	48(2)	125(5.18)	2,421
40	조(노지)	333(23.8)	0(0)	7(0.6)	0(0)	0(0.1)	1,052(75)	0(0)	8(0.6)	0(0)	1,403
41	겉보리,쌀보리	332(1.4)	212(0.9)	147(0.6)	109(0.4)	12,334(50.5)	7,106(29.1)	689(2.8)	2,668(10.9)	845(3.46)	24,447
42	호박	323(15.5)	259(12.5)	103(5)	259(12.5)	224(10.8)	155(7.5)	201(9.7)	554(26.6)	1(0.05)	2,083
43	시금치	305(12.4)	1,456(59)	39(1.6)	187(7.6)	45(1.8)	94(3.8)	307(12.4)	33(1.4)	1(0.08)	2,470
44	팥	287(8.2)	363(10.4)	765(21.8)	316(9)	304(8.7)	709(20.2)	422(12)	286(8.2)	53(1.53)	3,510
45	홍로	283(6.9)	93(2.3)	69(1.7)	762(18.5)	654(15.9)	52(1.3)	1,524(37)	677(16.4)	0(0.01)	4,118
46	산양삼(장뇌)	269(11)	356(14.6)	913(37.4)	127(5.2)	84(3.5)	291(11.9)	213(8.8)	154(6.3)	29(1.23)	2,441
47	쌈배추(노지)	262(100)	0(0)	0(0)	0(0)	0(0)	0(0)	0(0)	0(0)	0(0)	262
48	멜론(시설)	224(44.6)	0(0)	0(0)	0(0)	20(4)	251(50)	0(0)	7(1.4)	0(0)	503
49	화초작물(꽃)	223(10.6)	688(32.7)	117(5.6)	65(3.1)	168(8)	190(9.1)	77(3.7)	465(22.2)	106(5.06)	2,103
50	호두	151(12.6)	26(2.2)	40(3.4)	287(24)	111(9.3)	25(2.1)	484(40.5)	68(5.8)	0(0)	1,198

충남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은 논벼를 포함한 161개[10] 품목이고, 가축은 13종으로 총 174개 품목이 본 연구의 특화 계수 분석 대상이 되었다. 충남에서 생산되고 있는 161개 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21만8천 헥타르로 추산되었고, 노지작물 중에서는 논벼가 139,493ha로 충남 전체 식부면적의 절반이 넘는 63%를 차지해 충남은 쌀 생산에 있어서 특화되었다.

두 번째로 식부면적이 넓은 품목은 밤 11,628ha(5.3%)으로 조사되었는데 공주를 중심으로 부여와 청양 지역이 주요 산지임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는 콩 5,424ha(2.4%) 고추 5,153ha(2.3%) 3,857ha(1.7%), 고구마 3,427ha(1.5%) 등의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실류 중에서는 신고배가 3,110ha(1.4%)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사 1,598ha(0.7%)와 딸기 1,170ha(0.5%)가 그 다음으로 넓은 식부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부면적에 따른 충남 농업 특징을 정리해 논벼가 충남 전체 식부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 논 면적의 비대는 밭 농업이 비약적이라는 의미를 가져옴으로 밭 농업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동쪽으로 높아지는 지형적 성질에 따라 충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을 활용하는 산간 농업이 발달되었다.

<표 3-2> 충남 농산물 재배 품목 및 식부면적

단위 : ha, %

순위	품목	식부면적 (비율)	순위	품목	식부면적 (비율)	순위	품목	식부면적 (비율)
1	논벼	139,439.31 (63.95)	55	기타노지과수	132.32(0.07)	109	부지갱이(노지)	16.98(0.01)
2	밤	11,628.8(5.34)	56	오이	118.54(0.06)	110	잣	14.75(0.01)
3	기타노지작물	5,469.55(2.51)	57	은행	118.46(0.06)	111	미백	14.69(0.01)
4	콩	5,424.57(2.49)	58	호박	105.42(0.05)	112	취나물	13.66(0.01)
5	고추	5,153.72(2.37)	59	화초작물(꽃)	103.12(0.05)	113	살구	13.61(0.01)
6	고구마	3,857.69(1.77)	60	도라지	99.33(0.05)	114	차랑	12.87(0.01)
7	인삼	3,427.03(1.58)	61	황도	95.81(0.05)	115	기타시설과수	12.71(0.01)
8	신고	3,110.35(1.43)	62	기타	90.67(0.05)	116	기도백도	12.58(0.01)

10) 통계청 농업총조사(2010)에서 조사된 충남의 농산물 품목수는 177개이나 이중 원목재배, 톱밥배지, 표고버섯 세 품목은 본 연구와 성격이 다른 품목일 뿐 아니라, 재배면적이 아닌 본수로 제공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9	수박	2,608.21(1.2)	63	월하시	87.76(0.05)	117	밀(노지)	11.61(0.01)
10	마늘	2,552.45(1.18)	64	원황	85.77(0.04)	118	기타	10.72(0.01)
11	들깨	2,514.33(1.16)	65	달래(노지)	77(0.04)	119	마스캇베리에이	8.98(0.01)
12	배추	2,368.06(1.09)	66	기타(분재,야생화 등)	76.06(0.04)	120	새단	8.48(0.01)
13	감자	2,278.96(1.05)	67	양송이(시설)	65.99(0.04)	121	산수유	8.35(0.01)
14	기타식량작물(밭벼 포함)	1,831.66(0.85)	68	기타	65.29(0.03)	122	월봉조생	8.18(0.01)
15	기타시설작물	1,816.16(0.84)	69	거봉	61.73(0.03)	123	참외	8.15(0.01)
16	논벼(친환경)	1,808.38(0.83)	70	대추	60.81(0.03)	124	달래(시설)	7.77(0.01)
17	조경수	1,722.41(0.79)	71	캠벨얼리	60.74(0.03)	125	황금배	7.33(0.01)
18	후지(부사)	1,598.56(0.74)	72	기타	60.46(0.03)	126	유명	6.49(0.01)
19	딸기	1,170.26(0.54)	73	백도	59.33(0.03)	127	추황배	6.06(0.01)
20	무	1,158.23(0.54)	74	기타	56.78(0.03)	128	미홍	5.69(0.01)
21	기타	1,047.08(0.49)	75	무	54.41(0.03)	129	레드골드	5.67(0.01)
22	참깨	876.27(0.41)	76	기타산나물	54.12(0.03)	130	장십랑	5.46(0.01)
23	토마토	866.35(0.4)	77	더덕	53.27(0.03)	131	대구보	4.46(0.01)
24	거봉	665.07(0.31)	78	두릅	53.12(0.03)	132	서촌조생	4.33(0.01)
25	삼나물(노지)	638.49(0.3)	79	당근	50.9(0.03)	133	양광	4.29(0.01)
26	상추	602.72(0.28)	80	시금치	48.72(0.03)	134	장호원백도	4.29(0.01)
27	오이	591.76(0.28)	81	부유	48.45(0.03)	135	선홍	4.25(0.01)
28	고추	590.3(0.28)	82	서양채소	47.45(0.03)	136	백봉	4.09(0.01)
29	캠벨얼리	538.26(0.25)	83	관상작물	46.82(0.03)	137	아부백도	3.54(0.01)
30	채소	499.07(0.23)	84	수액채취작물	42.92(0.02)	138	금촌조생	3.32(0.01)
31	쪽파(시설)	478.76(0.22)	85	구기자	41.78(0.02)	139	산사	2.71(0.01)
32	옥수수	434.2(0.2)	86	방울토마토(시설)	41.34(0.02)	140	만풍배	2.62(0.01)
33	배추	397.45(0.19)	87	자두	40.53(0.02)	141	마스캇베리에이	2.62(0.01)
34	양파	378.54(0.18)	88	천중도백도	40.26(0.02)	142	새단	2.21(0.01)
35	기타약용작물	371.07(0.18)	89	둥시	39.4(0.02)	143	한아름	2.15(0.01)
36	양배추	368.64(0.17)	90	복분자	37.18(0.02)	144	홍월	2.02(0.01)
37	매실	360.66(0.17)	91	블루베리(시설,노지)	36.42(0.02)	145	수미	1.98(0.01)
38	대파	337.21(0.16)	92	기타	36.3(0.02)	146	독활(노지)	1.65(0.01)
39	땅콩	335.86(0.16)	93	수박	35.48(0.02)	147	천홍	1.61(0.01)
40	조(노지)	333.55(0.16)	94	머위(시설)	32.6(0.02)	148	신백도	1.36(0.01)
41	겉보리,쌀보리	332.46(0.16)	95	상추	29.39(0.02)	149	꽈리고추(노지)	1.18(0.01)
42	호박	323.38(0.15)	96	기타	29.31(0.02)	150	홍금	1.15(0.01)
43	시금치	305.19(0.14)	97	감천배	27.52(0.02)	151	청도반시	1.06(0.01)

44	팥	287.9(0.14)	98	오미자	27.35(0.02)	152	서홍	1(0.01)
45	홍로	283.44(0.13)	99	약용작물	25.98(0.02)	153	부지화(한라봉)	0.83(0.01)
46	산양삼(장뇌)	269.46(0.13)	100	창방조생	22.75(0.02)	154	흑보석	0.7(0.01)
47	쌈배추(노지)	262.45(0.13)	101	감홍	22.04(0.02)	155	흑구슬	0.67(0.01)
48	멜론(시설)	224.13(0.11)	102	헛개나무	20.29(0.01)	156	수홍	0.6(0.01)
49	화초작물(꽃)	223.65(0.11)	103	고종시	19.98(0.01)	157	수옥	0.62(0.01)
50	호두	151.45(0.07)	104	매실(노지)	19.74(0.01)	158	홍이슬	0.14(0.01)
51	갑주백목	149.55(0.07)	105	쓰가루	18.69(0.01)	159	부지화(한라봉)	0.14(0.01)
52	기타버섯	147.02(0.07)	106	화산	18.6(0.01)	160	진황	0.06(0.01)
53	들깻잎(시설)	141.96(0.07)	107	홍옥	18.42(0.01)	161	기타 (온주밀감류)	0.02(0.01)
54	산나물	137.66(0.07)	108	월미복숭아	18.33(0.01)	162	총면적	218052.6(100)

충남지역의 가축 사육두수는 <표3-2>와 같이 가금류인 닭(육계)과 산란용 닭이 1천8백만 두, 7백6십만 두로 전체의 64.2%를 차지해 단순 사육두수로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돼지와 기타가축이 각각 1백5십만 두 4.9%, 1백2십만 두 3.9%로 조사되었다. 한우는 전체의 1.2%로 35만두가 사육되고 있다.

<표 3-3> 충남 가축 사육 두수(2010)

단위: 마리, %

순위	가축	사육두수
1	닭(육계)	18,906,451(61.1)
2	닭(산란계)	7,624,283(24.6)
3	돼지	1,532,143(4.9)
4	기타가축	1,199,572(3.9)
5	오리	999,288(3.2)
6	한우	357,570(1.2)
7	개	117,804(0.4)
8	꿀벌(통)	76,331(0.2)
9	젖소암컷	74,007(0.2)
10	육우(젖소수컷 포함)	25267(0.1)
11	염소	23123(0.1)
12	토끼	22559(0.1)
13	사슴	9223(0.03)
14	총마리수(마리)	30,967,621(100)

충남의 1위부터 50위까지의 품목에 대비하여 전국 시·도의 작물별 식부면적 산출 결과 50개 품목 중 9개 품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에서 가장 넓은 식부면적은 논벼이고 전국 식부면적의 17%이며 전남 20%에 이어 두 번째로 논벼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충남 농산물 품목은 밤으로 조사되었다. 밤은 전국 재배면적의 44%로 절반정도의 국내산 밤이 충남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충남의 밤 산업이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기타 노지작물이 12.9%를 보였고, 인삼이 전국 재배면적 중 21.3%의 크기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재배 면적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의외로 신고배로 나타났다. 천안성환 등지에서 신고배가 재배되고 있으나, 충남에서는 예산사과에 밀려 특화도가 낮다고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사과보다도 식부면적 면에서는 전남(24.6%)보다 약간 높은 24.9%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었다. 다섯 번째 부터는 토마토 24.2%, 삼나물(노지) 93%, 오이 21.78%, 쪽파(시설) 100%가 충남에서 전국대비 가능 넓은 식부면적을 가진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종합해 보면 충남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벼 농사가 활발하고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산간지역이 발달하여 밤과 같은 임산물 재배가 활발하며, 쌀 가격의 하락, 정부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논산, 부여 당진 등 서남부권역의 쌀 생산지에서 밭으로 전환하여 토마토, 수박, 딸기와 같은 시설하우스 작물 재배가 늘어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홍성은 국내에서 오리쌀, 우렁이 농법에 의한 친환경 쌀 농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나, 식부면적으로 보면 전국 친환경 쌀 재배면적의 5.3%에 불과하여 쌀 재배면적이 비슷한 전남과 비교했을 때 전남의 10분의 1에 불과하여 친환경 쌀 생산노력에 더 많은 노력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분석방법

충남의 시·군 품목별 특화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식(1)과 식(2)와 같은 방법으로 특화 계수를 도출할 수 있다.

$$\text{작물특화계수} = \frac{(\text{시・군 단위 작목별 식부면적}/\text{시・군 단위 총 식부면적})}{(\text{도단위 작목별 식부면적}/\text{도 단위 총 식부면적})}$$

$$\text{가축특화계수} = \frac{(\text{시・군 단위 가축별 사육두수}/\text{시・군 단위 가축 총 사육두수})}{(\text{도단위 가축별 사육두수}/\text{도 단위 가축 총 사육두수})}$$

3)분석결과

농업인의 선택에 대한 상대적인 특화수준을 나타내는 작물 및 가축의 특화계수는 작물 및 가축에 상대적 재배면적 및 사육두수를 나타냄으로써 지역별 품목에 대한 일차적인 상대적 특화수준을 나타낸다(김충실, 2009).

1순위 특화분석 결과 식량작물 중에서는 금산 인삼이 19.76으로 가장 높은 특화계수를 보였다. 금산은 인삼뿐만 아니라 기타약용식물(11.1), 산양삼(17)과 같은 약용작물 재배에서 매우 특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금산은 앞으로도 약용식물을 주력상품으로 한방, 미용, 건강과 관련된 6차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금산 지역 약용작물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은 특화 계수를 보이는 작물은 논산의 상추(9.71)로 분석되었다. 4순위 또한 논산 딸기(7.6)로 분석되어 논산은 시설 하우스 농업부분에 특화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논산에 인접한 계룡은 계룡산 자락에 위치해 매실(4.56) 생산 및 조경수(7.2) 묘목 생산부분에 특화되었다. 사과 주산지로 유명한 예산은 부사(7.2)가 가장 높은 특화 계수를 보였으며 충남에서는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이다. 부사와 더불어 홍로(5.7) 또한 높게 나타났는데 예산이 사과 생산지로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은 과수 외에 쌀 농사 보다는 시설하우스 농업과, 준산간지에서 재배되는 밭농업이 발달되었다. 바다와 인접한 서산은 노지 삼나물(6.8)과 쌈배추(8.6), 양배추(6.5), 양파(3.2) 등 전형적인 노지 밭 농업이 발달되었다. 서산과 접한 태안에서는 마늘(6.1)이 가장 높은 특화계수를 보였고, 태안의 육쪽 마늘의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서산과 비슷하게 전형적인 노지 밭 농업이 발달되었다. 특이점은 최근 태안에서 안면도 꽃 축제가 열리는 등 화훼산업(5.7) 특화계수가 높게 나타나 태안의 대표 작물로 육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남은 인삼과 더불어 밤을 빼 놓을 수 없는데 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식재 면적을 가지고 있고 공주는 밤(5.0) 산업이 매우 특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와 접한 부여는 충남에서 논산과 더불어 시설하우스 재배 농산물이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수박이 4.8로 가장 높은 특화계수를 보이고 있고, 토마토(3.7), 멜론(시설)(10.6) 등 시설 하우스 과채류 상품이 특화되었다.

기타 지역으로 당진은 무(3.3)와 감자(2.9) 배추와 같은 서류와 채소류가 특화되었고, 서천은 전형적인 논 농업 지역으로 논벼(1.2)가 가장 특화되었으며, 아산은 켐벨얼리(4.8), 천안 신고(3.0), 거봉(0.04) 등 과수 산업에 특화되었다. 청양은 역시나 고추(3.0)가 충남에서 가장 특화되었고, 홍성은 친환경 논 농업의 메카로서 친환경 논벼(4.4)가 특화되었다.

충남 품목별 식재 면적과, 특화계수를 종합하여보면 충남은 쌀, 밤, 인삼에 있어서 가장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쌀은 서천, 밤은 공주, 과수산업은 천안과 아산이 특화되었다. 또한 논산과 부여에서는 딸기, 멜론, 수박과 같은 시설 하우스 산업이 발달되었다. 서해안 지역은 서산과 당진 그리고 태안은 전형적인 논 농업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고, 예산은 사과 생산에 있어서 특화되었으나, 식부면적은 경북의 약 12%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어 명성에 비해 생산량이 적었으며 오히려 과수분야에서는 천안의 성환 배가 유명세를 더 타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성환배와, 입장포도 등을 위한 천안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3-4> 충청남도 농업 특화 분석계수 분석 요약

1순위 특화지역	작목
계룡	기타식량작물(1.68),**들깨(1.69)**,**채소(친환경)(4.27)**,매실(4.56),**조경수(7.28)**[4]
공주	**밤(5.09)**[8]
금산	기타약용작물(11.16),산양삼(장뇌)(17.02),**인삼(19.76)**[1],**참깨(2.64)**
논산	**고구마(2.15)**,**딸기(7.62)**[3],**상추(9.71)**[2]
당진	**감자(2.96)**,**무(3.36)**
부여	멜론(시설)(10.6)[3],**토마토(3.71)**,호박(4.55),**수박(4.89)**[9]
서산	기타노지작물(1.95),양파(3.27),양배추(6.57),**삼나물(노지)(6.83)**[6],쌈배추(노지)(8.61)
서천	**논벼(1.22)**[10],조(노지)(6.81)[7]
아산	대파(3.13),**캠벨얼리(4.83)**
예산	쪽파(시설)(12.07)[2],시금치(4.97),홍로(5.7),**배추(5.94)**,**후지(부사)(7.22)**[5]
천안	**거봉(0.04)**,옥수수(1.83),호두(2.32),**신고(3.02)**,**오이(3.19)**
청양	**고추(3.03)**,**기타(친환경)(4.94)**[10]
태안	**콩(2.46)**,겉보리,쌀보리(2.86),**고추(3.15)**,땅콩(5.42),화초작물(꽃)(5.73),**마늘(6.15)**[7]
홍성	팥(1.82),배추(2.35),기타시설작물(4.42),**논벼(친환경)(4.43)**

주1 : 기타작물 제외 식부면적이 30위권 안에 있는 작물은 글씨체를 진하게 표시함.
주2 : 위첨자로 표기한 숫자는 지역특화계수 10위까지 순위임.

<표 3-5> 충청남도 농업 특화 계수 분석 결과

단위 : ha, %

식부면적순위	작목	1순위(특화계수)	2순위(특화계수)	3순위(특화계수)
1	논벼	서천(1.22)	보령(1.22)	당진(1.2)
2	밤	공주(5.09)	청양(4.14)	부여(3.73)
3	기타노지작물	서산(1.95)	홍성(1.47)	아산(1.16)
4	콩	태안(2.46)	금산(1.67)	계룡(1.3)
5	고추	태안(3.15)	청양(2.71)	홍성(1.35)
6	고구마	논산(2.15)	태안(1.86)	홍성(1.35)
7	인삼	금산(19.76)	계룡(1.75)	논산(1.21)
8	신고	천안(3.02)	아산(1.15)	예산(1.07)
9	수박	부여(4.82)	논산(2.97)	예산(1.75)
10	마늘	태안(6.15)	서산(3.07)	홍성(0.71)
11	들깨	계룡(1.69)	홍성(1.64)	금산(1.55)
12	배추	홍성(2.35)	당진(1.88)	아산(1.65)
13	감자	당진(2.96)	서산(1.95)	홍성(1.6)
14	기타식량작물(밭벼 포함)	계룡(1.68)	홍성(1.59)	금산(1.43)
15	기타시설작물	홍성(4.42)	금산(2.78)	부여(1.53)
16	논벼(친환경)	홍성(4.43)	아산(2.51)	서천(1.48)
17	조경수	계룡(7.28)	서산(2.73)	천안(1.41)
18	후지(부사)	예산(7.22)	당진(1.27)	아산(0.92)
19	딸기	논산(7.62)	계룡(1.74)	부여(1.46)
20	무	당진(3.36)	태안(1.88)	서산(1.34)
21	기타(친환경)	청양(4.94)	부여(2.89)	공주(2.67)
22	참깨	금산(2.64)	홍성(1.81)	계룡(1.64)
23	토마토	부여(3.71)	논산(3.52)	계룡(2.65)
24	거봉	천안(0.04)	논산(0.02)	당진(0.02)
25	삼나물(노지)	서산(6.83)	태안(3.54)	-
26	상추	논산(9.71)	계룡(7.51)	당진(0.4)

27	오이	천안(3.19)	공주(2.46)	부여(0.66)
28	고추	청양(3.03)	공주(2.29)	부여(2.25)
29	캠벨얼리	아산(4.38)	천안(2.64)	보령(1.36)
30	채소(친환경)	계룡(4.27)	논산(3.23)	공주(1.4)
31	쪽파(시설)	예산(12.07)	당진(0.44)	-
32	옥수수	천안(1.83)	계룡(1.8)	보령(1.64)
33	배추	예산(5.94)	홍성(1.83)	보령(1.32)
34	양파	서산(3.27)	태안(2.31)	홍성(1.48)
35	기타약용작물	금산(11.16)	청양(1.81)	천안(1.41)
36	양배추	서산(6.57)	당진(1.22)	태안(1.04)
37	매실	계룡(4.56)	천안(1.92)	아산(1.16)
38	대파	아산(3.13)	서산(2.59)	태안(1.8)
39	땅콩	태안(5.42)	서산(2.23)	예산(1.3)
40	조(노지)	서천(6.81)	홍성(3.46)	예산(2.21)
41	겉보리,쌀보리	태안(2.86)	홍성(1.68)	아산(1.68)
42	호박	부여(4.55)	논산(2.93)	공주(1.83)
43	시금치	예산(4.97)	부여(4.43)	논산(0.68)
44	팥	홍성(1.82)	천안(1.29)	보령(1.28)
45	홍로	예산(5.7)	당진(2.25)	홍성(0.9)
46	산양삼(장뇌)	금산(17.02)	서천(2.56)	예산(1.56)
47	쌈배추(노지)	서산(8.61)	-	-
48	멜론(시설)	부여(10.6)	-	-
49	화초작물(꽃)	태안(5.73)	예산(1.71)	계룡(1.52)
50	호두	천안(2.32)	공주(2.3)	계룡(1.85)

2. 지역특화 분석에 따른 함의점

전국 대비 충남에서 가장 넓은 식재 비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밤(44.4), 인삼(21.3), 신고(24.9), 토마토(24.2), 삼나물(노지)(93.8), 오이(21.8) 쪽파(시설)(100), 쌈배추(노지)(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국에서 충남이 두 번째로 높은 식재 비율을 가지고 있는 품목은 논벼(17.7), 기타노지작물(12.9), 기타시설작물(15.1), 딸기(25.1), 거봉(29.5), 상추(17.1), 배추(19.7), 조(노지)(23.8), 호박(15.5), 멜론(시설)(44.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남 15개 시·군별로 각각의 농산물에 대한 지역 특화 분석을 시행한 결과 밤은 공주(5), 인삼은 금산(19.7), 신고 배는 천안(3), 토마토는 부여(3.7), 삼나물(노지)은 서산(6.8), 오이는 천안(3.1), 쪽파(시설)는 예산(12), 쌈배추(노지)는 서산(8.6)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논벼는 서천(1.2), 기타노지작물은 서산(1.9), 딸기는 논산(7.6), 거봉은 천안(0.04), 상추는 논산(9.7), 배추는 예산(5.9), 조(노지)는 서천(6.8), 호박은 부여(4.5), 멜론(시설) 또한 부여(10.6)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충남은 쌀, 인삼, 밤, 배, 사과, 시설 원예 품목 그리고 콩이 특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식재 면적이 넓고 주요 산지는 서천, 보령, 당진이다. 충남 홍성이 친환경 쌀 재배지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친환경 쌀 재배면적은 전남의 1/10수준으로 총 생산면적은 전남과 흡사함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쌀 생산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매우 뒤 떨어지는 행보가 아닌가 싶다.

금산은 역시나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충남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화되었다. 인삼뿐만 아니라 약용작물에 있어서도 전국적으로 특화되었다. 금산은 인삼 재배면적이 3,427ha(21%)로 가장 넓고, 약용작물 또한 전국에서 가장 넓은 21%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약용 작물(11.1)과 산양삼(17.0)에 있어서도 특화되어 앞으로 금산을 약용, 한방, 한의학, 화장품, 기능성제품, 의료, 실버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가치가 있다.

밤의 식재면적은 11,628ha로 전국 식재 면적의 44.4%가 충남이 차지하고 있다. 공주를 중심으로 청양과 부여가 밤 주산지이며 특화되었다. 특히 공주는 밤 외에는 그렇다할 특화 작물이 없고 농산물로는 오이(2.4), 고추(2.2)이 호박((1.8)과 같은 밭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어서 공주시에서는 밤과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거나, 새로운 전략 농산물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밤은 가을철에 한번 수확할 수 있는 임산물로 한계가 있음으로 밤꽃, 꿀, 치유, 목재산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천안은 과수 작물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배는 보통 나주가 주산지로 여겨지고 있으나, 충남이 전국 배 식재 면적의 24.9%를 차지하고 있어 전남 보다 0.7%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화분석 결과에서는 충남에서도 천안이 신고 배(3.0)로 특화되었고 이는 성환면을 중심으로 생산면적이 꽤 넓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천안은 배 뿐만 아니라 거봉(0.04), 캠벨얼리 포도(2.63)등 주로 과수 산업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고 이웃해 있는 아산도 켐벨얼리 포도(4.8)로 특화 되어 있어, 천안 아산 지역은 배, 포도 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

부여와 논산은 시설 원예 작물에서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여는 수박이 전국대비 26.5% 식재 면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충남에서도 수박 생산에 있어서 4.8로 특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멜론(시설)(10.6), 토마토(3.7) 등 시설 원예 작물 재배가 매우 활성화 된 것으로 보인다. 논산도 부여와 같이 시설 원예 작물 재배에 특화되었지만, 품목은 매우 상이하다. 논산은 딸기가 전국에서 식재 면적 대비 25.1%를 차지하여 경남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고, 충남 내에서도 딸기 생산에 있어서 7.8로 매우 특화 되었다.

마지막으로 콩은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식재 면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별 특화계수는 태안이 2.4로 가장 특화 되었고, 다른 지역은 전반적으로 평이한 수준으로 충남 전역에서 골고루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2절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

1. 연구방법 및 목적

6차산업 정책이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최근까지 시행되어 4년차에 접어들었다. 6차산업 정책은 중앙정부(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각 시·도가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농촌 융복합 산업 법'에 의해 광역권별로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을 수행 중에 있다.

6차산업 정책의 대표적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시·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 또는 복합산업이라고 하는 1)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도 하는 2)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클러스터 산업 혹은 향토산업육성 산업이라고 하는 3)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이 있다. 그리고 각 시·도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이 있는데 지원프로그램은 6차산업 경영체를 인증하고 사후 관리하는 하는 3)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과, 경영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거나 창업을 지원해 주는 4)현장코칭사업, 6차산업 인증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5)안테나숍 운영이 있다. 또한 지역의 6차산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역자원 조사로써 6)6차산업 기초실태조사와 제조가공 시설디렉토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6차산업 정책은 기존의 농업정책과 달리 농업생산자원을 포함하는 농촌자원을 활용하해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조·가공분야,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농촌산업 정책이다. 그렇지만 앞서 2장 현황부분에서 제시되었듯이 6차산업 정책이 농산물 제조가공 정책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본 문제점에 대한 실증분석 차원에서 6차산업의 주요 정책 프로그램들의 주요 키워드를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해 6차산업 주요 정책들의 주요 관심요소에 대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관련 분야의 트렌드를 통찰(insight)할 수 있는 기법이다(조승현, 2013).

2.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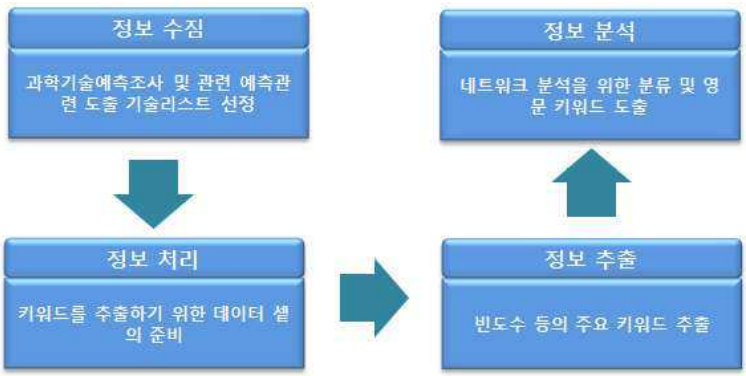
최근 언론기사의 디지털화, 인터넷 정보, 모바일 기기 정보, 사회정보망(SNS)확산으로 수많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이 넘쳐나고 있다. 텍스트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사용자가 관

심을 가지는 정보를 키워드의 수준이 아니라 배경(context) 수준의 의미를 찾아내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정근하, 2011).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위해서는 비정형화된 데이터(non-structured data)를 자기 목적에 알맞은 정형화된 데이터(strutured data)로 가공하거나 추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고 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의 양에 따라 매우 복잡하거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대상을 결정하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제거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고차원적인 실험학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검색(information retrieval)뿐만 아니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통계학, 자연언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와 같은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텍스트마이닝은 빅데이터(big-data), 사회조사분석과 같은 인터넷과 모바일(mobile)분야에서 사회 트렌드 조사 분석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부 6차산업 정책 1)자료를 수집하고, 2)자료의 대상을 결정, 3)데이터 마이닝을 통한 정형화된 정보추출, 4)정보 분석의 절차에 따라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정책 트랜드 분석을 시행해 보고자 한다.

<그림 3-1> 텍스트마이닝 프로세스



자료 : 정근하(2011)

3.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정책들 중에서 6차산업 정책으로 한정하고 6차산업 정책들 중에서도 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정책과, 각 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6차사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6차산업 정책의 포괄적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작성한 6차산업 정책 사업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각 시·도에서 농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이 새롭게 진행할 경우 각 시·도 별로 정책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식품부에서 6차산업 추진 사업 안내(지침)를 사용 하였다.

수집된 농식품부 지침서는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이 총 6개 자료(documents)이며 160쪽 86,600 단어의 비정형화된 한글 문서로 구성되었다. 본 자료는 통계 패키지 R을 활용해 명사추출을 우선 시행하고, 불필요한 기호와 단어 처리 과정 또한 수행하여 정화화 하였다.

텍스트마이닝 처리 결과 22,041개의 데이터가 추출되었고 이중 10번 이하의 빈도를 보이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남은 총 19,755개의 데이터[11]를 <그림3-2 >과 같이 6차산업 정책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로 형상화 할 수 있었다.

<그림 3-2>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

11) 세종한글사전 기준으로 명사만을 추출하였다.

4. 분석결과

1)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

6차산업 텍스트마이닝 데이터 중 10번 이하의 빈도를 보이는 데이터를 제거 하고 6차산업 정책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시행한 결과 1순위 키워드는 '사업'으로 총751회 전체의 3.8% 빈도 비율을 차지하였다. 2순위 '지원' 339회 1.7% 보다도 두 배나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수집된 비정형 정책 지침은 6차산업을 추진하는 방법, 기준, 예시, 방안에 대한 사업 지침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2순위인 '지원'은 농가나 경영체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상지원이나 자금지원이 될 것임으로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지원과 비슷한 키워드로 '보조금'이 11순위를 차지하였고, '보조사업' 또한 24순위로 다소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이 '정책사업'은 '지원사업'혹은 '보조금[12)]'이라는 공식이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6차산업 정책 또한 보조사업 비중이 큰 부분임을 알 수 있다. 3순위는 '마을'로 나타났으며 마을은 농촌자원을 생성해 내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높은 순위를 보인 것에 조금이나마 안도가 된다. 마을은 주체로서의 마을과, 지역으로서 마을 그리고 공간으로서 마을 세 범주를 대표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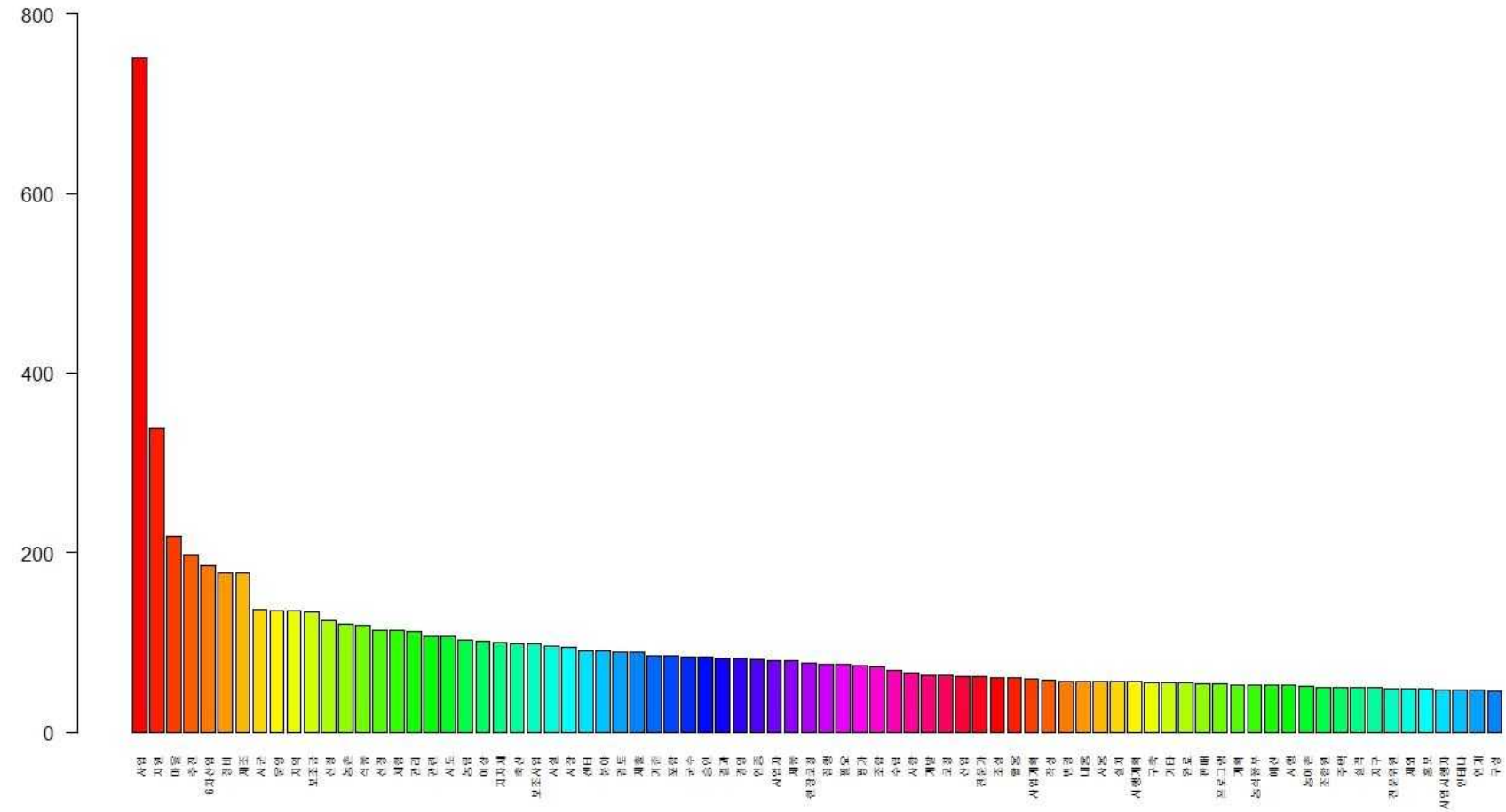
평가 대상이 6차산업 정책이기 때문에 '6차산업' 정책 키워드가 5순위에 올랐고, '6차'라는 키워드 또한 80위에는 못 들었지만 36건의 빈도를 보여 예상했던 대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었다. 10순위는 마을보다 더 큰 범주를 나타내는 '지역'이 차지하였고, '농촌'이 13순위, '식품' 14순위, '체험' 16순위, '농림' 20순위, '축산' 23순위, '사업자' 38순위로 사업 목적에 맞는 키워드가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보조금'은 11순위 빈도를 보였고, '보조사업'또한 24순위를 차지해 6차산업정책 또한 보조사업

<표 3-6>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빈도 분석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순위	키워드	
1	사업	751(3.8)	28	분야	90(0.5)	55	변경	57(0.3)
2	지원	339(1.7)	29	검토	89(0.5)	56	내용	56(0.3)
3	마을	218(1.1)	30	제출	89(0.5)	57	사용	56(0.3)
4	추진	197(1)	31	기준	85(0.4)	58	설치	56(0.3)
5	6차산업화	185(0.9)	32	포함	85(0.4)	59	시행계획	56(0.3)
6	정비	177(0.9)	33	군수	84(0.4)	60	구축	55(0.3)
7	제조	177(0.9)	34	승인	83(0.4)	61	기타	55(0.3)
8	시군	137(0.7)	35	결과	82(0.4)	62	완료	55(0.3)
9	운영	135(0.7)	36	경영	82(0.4)	63	판매	54(0.3)
10	지역	135(0.7)	37	인증	81(0.4)	64	프로그램	54(0.3)
11	보조금	134(0.7)	38	사업자	79(0.4)	65	계획	53(0.3)
12	신청	124(0.6)	39	제품	79(0.4)	66	농식품부	53(0.3)
13	농촌	120(0.6)	40	현장코칭	77(0.4)	67	예산	53(0.3)
14	식품	119(0.6)	41	집행	75(0.4)	68	시행	52(0.3)
15	선정	113(0.6)	42	필요	75(0.4)	69	농어촌	51(0.3)
16	체험	113(0.6)	43	평가	74(0.4)	70	조합원	50(0.3)
17	관리	112(0.6)	44	조합	73(0.4)	71	주택	50(0.3)
18	관련	106(0.5)	45	수립	69(0.3)	72	실적	49(0.2)
19	시도	106(0.5)	46	사항	66(0.3)	73	지구	49(0.2)
20	농림	102(0.5)	47	개발	63(0.3)	74	전문위원	48(0.2)
21	이상	101(0.5)	48	코칭	63(0.3)	75	제외	48(0.2)
22	지자체	100(0.5)	49	산업	62(0.3)	76	홍보	48(0.2)
23	축산	99(0.5)	50	전문가	62(0.3)	77	사업시행자	47(0.2)
24	보조사업	98(0.5)	51	조성	61(0.3)	78	안테나	47(0.2)
25	시설	96(0.5)	52	활용	61(0.3)	79	연계	47(0.2)
26	시장	94(0.5)	53	사업계획	59(0.3)	80	구성	46(0.2)
27	센터	91(0.5)	54	작성	58(0.3)			

<그림 3-1> 6차산업 정책 키워드 분석(80)



2)정책 키워드 지역자원 연계 분석

본 연구는 '6차산업 정책의 1차 자원이 단순 농업 생산 자원에 국한하지 않고 여러 자원들을 활용하는 정책 활동으로 추진되는 것이 농촌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웠다. 본 연구가 연구 가설에 따른다면 분석된 6차산업 정책 키워드가 지역자원 분류에 어느 정도 고루 분포되었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6차산업 정책 키워드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지역자원 분류표에 할당하여 연계분석을 시행 하였다. 할당 방법은 델파이 분석기법을 적용하였고, 빈도가 10회 이상인 정책 키워드를 네 가지 대분류에 각각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0회 이상의 빈도를 보이더라도 네 가지 지역자원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키워드는 제외[13]하였다.

연계분석 결과 산업적 자원에 속하는 정책 키워드는 6차산업(185), 제조(177), 식품(119), 체험(113), 농림(102), 축산(99) 등의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산업적 자원은 경제적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한 활동이나 농업, 축산과 같이 6차산업의 기초가 되는 키워드가 주로 포함되었다.

역사·문화자원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향토' 35건과 '문화'가 12건으로 분석되었다. -상품에 스토리와, 역사 문화를 가미하면 가치 있는 상품이 된다- 6차산업 상품을 단순히 생산-가공-유통에서 벗어나 상품의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환경자원에 속하는 키워드는 7개 키워드로 '개선'(38), '자원'(39), '토지' (36), '휴양'(19), 경관(18), 공원(17), 생태(10)로 분석되었다. 총 빈도수는 188회 전체의 5.3% 비율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원은 전체 키워드 중에서 2순위를 기록한 마을(218)을 비롯하여 농촌(120), 농어촌(51), 주택(50), 교육(42), 법인(35), 주민(35), 역량(33), 건축(33), 공사(34) 등 총 20개 키워드로 전체의 839 빈도 24%를 차지해 6차산업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보이는 자원으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한 중앙정부의 6차산업 정책은 원물 중심의 1차 자원을 활용해 산업화 하고 이로써 지역공동체 회복이나, 지역사회 발전, 사회간접 시설 개발과 같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농촌의 역사·문화 자원에 대한 보전은 물론 활용에 있어서는 매우 취약하고, 생물 다양성이나 경관가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13) 대표적인 키워드로 사업, 지원, 보상 등 이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만들어지며 좋은 경관과 환경을 가진 농촌에 사람이 방문하고자 하는 원칙을 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7> 6차산업 정책 키워드와 지역자원의 연계분석 결과

대분류	지역자원 중분류	정책 키워드	빈도(%)
산업적 자원	농사,가축사육,특용작물생산,시설농업,특산물생산,농산가공시설,공업시설,판매시설,인공레저자원	6차산업(185),제조(177),식품(119),체험(113),농림(102),축산(99),시설(96),경영(82),인증(81),사업자(79),제품(79),개발(63),산업(62),사업계획(59),판매(54),프로그램(54),지구(49),안테나(47),사업단(45),가공(43),매출액(44),생산(42),관광(41),6차(36),농업(35),유통(35),업체(29),재산(29),기술(28),농산물(25),직매장(24),기반시설(23),기반(21)\상품(21),품목(19),농공단지(18),사업체(18),산업육성(18),식품산업(18),온라인(18),창업(18),농축산물(16),부지(16),가공품(15),융복(15),특화(13),관광농원(11),권역(11),농식품(11),디자인(11),전문기관(11),조성사업(11),가공시설(10),가공업체(10),영농(10),지적재산권(10)	2,419(69)
역사·문화 자원	전통건조물,전통풍습,향토음식	향토(35),문화(12)	47(1.3)
자연·경관 자원	환경자원,경관,수자원,식물자원,동물자원	개선(38),자원(39),토지(36),휴양(19),경관(18),대지(17),공원(11),생태(10)	188(5.3)
사회적 자원	농업시설,네트워크기반시설,공공시설,숙박시설,공동체활동,씨족세지풍속,지역문화활동,체험시설,생산문화활동,공동체조직	마을(218),농촌(120),농어촌(51),주택(50),교육(42),법인(35),주민(35),역량(33),건축(33),공사(34),시설물(28),주체(26),농가(25),농업인(22),활동(19),농산어촌(16),농장(16),단체(15),조직(11),생활(10),	839(24)

5. 소결

6차산업은 생산자발 가치사슬 모델로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6차산업화 정책은 유럽의 다기능 농업과 마찬가지로 농업을 단순 식량생산 전초기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 고차원적 농촌발전 정책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 절에서는 박근혜정부에서 6차산업화를 4년 동안 추진하는데 있어서 6차산업이 포괄적 정책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가에 대한 가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과 연계분석 방법으로 분석해 보았다.

첫째로 텍스트마이닝 분석결과 '사업'에 이어 '지원' 2위, '보조금' 11순위, '보조사업' 24순위를 보여 6차산업 정책은 기존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사업' '보조사업', '경제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의 농촌산업화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역자원과의 키워드 연계 분석 결과, 6차산업화 정책은 산업적 자원과 연계된 키워드 가 전체의 69%를 차지하여 산업적 관점이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농업시설, 공공시설, 숙박시설 자원에 속하는 사회적 자원이 2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즉 6차산업 정책의 핵심은 1차 원물의 산업화를 통한 지역공동체회복과 발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역사문화 자원은 1.3%, 자연경관자원 5.3%로 나타나 농촌 환경과 역사 문화 보전에는 매우 소극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제3절 6차산업 지역자원 실태분석

1. 조사개요

지역특화 분석을 통해 충남지역의 대표적 6차산업 영역으로 평가되는 밤(공주), 사과(예산), 콩(청양)을 중심으로 지역자원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2016년 12월 2일부터 12월7일까지 시행하였다. 2015년 농식품부 사업으로 진행된 충남 6차산업 기초실태조사 1,137경영체 중 공주, 청양, 부여에서 6차산업을 하고 있는 경영체와, 예산군 사과 경영체 그리고 충남에서 장류 사업을 하는 경영체를 추출한 결과 총 157개 모집단이 추출되었고,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품목별로 30개씩 총 91개 표본이 수집되었다. 공주시 밤, 예산군 사과, 충남 콩의 업종별로 지역자원의 활용실태가 상이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χ^2-test와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는 통계패키지 SAS를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의 일반특성

1) 위치

총 91개의 조사대상 업체 중 32개 업체는 밤 관련 6차산업 업체이고, 29개 업체는 사과, 그리고 30개 업체는 콩을 주로 다루는 업체로 나타났다. 이들 6차산업화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특성에 따라 소재지가 명확히 상이하였다. 즉 밤은 공주지역에 특정되어 분포되어 있고, 사과는 예산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반면 콩의 경우는 청양을 중심으로 비중이 높기는 하였지만, 예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시・군에 1개 이상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차산업화 중 밤과 사과는 지역특산물과 관계성이 높아 지역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조사대상 업체의 위치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전체	91 (100.0)	32 (100.0)	29 (100.0)	30 (100.0)
공주	33 (36.3)	31 (96.9)	0 (0.0)	2 (6.7)
예산	30 (33.0)	1 (3.1)	29 (100.0)	0 (0.0)
청양	13 (14.3)	0 (0.0)	0 (0.0)	13 (43.3)
기타	15 (16.5)	0 (0.0)	0 (0.0)	15 (50.0)

χ^2=165.176, df=6, prob=0.0001

2) 설립형태

조사대상업체 91개의 설립형태를 살펴보면, 62개 업체가 개인사업자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농업경영체가 13개 나타났다. 반면 영농조합법인과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법인 등은 각각 6개소, 2개소, 4개소로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밤, 사과, 콩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과와 콩의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빈도가 더 높은 반면, 밤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9> 조사대상 업체의 설립형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전체	91 (100.0)	32 (100.0)	29 (100.0)	30 (100.0)
개인사업자	62 (68.1)	16 (50.0)	22 (75.9)	24 (80.0)
농업경영체	13 (14.3)	10 (31.3)	2 (6.9)	1 (3.3)
영농조합법인	6 (6.6)	4 (12.5)	1 (3.5)	1 (3.3)
농업회사법인	2 (2.2)	0 (0.0)	0 (0.0)	2 (6.7)
주식회사법인	4 (4.4)	2 (6.3)	1 (3.5)	1 (3.3)
기타	4 (4.4)	0 (0.0)	3 (10.3)	1 (3.3)

χ^2=23.3763, df=10, prob=0.0094

3) 대표의 학력

조사대상 업체 대표의 학력은 고졸이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로 3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밤의 경우는 대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과와 콩의 경우는 고졸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업체의 설립유형과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밤의 경우는 농업경영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규모화와 경영화를 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3-10> 조사대상 업체 대표의 학력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전체	91 (100.0)	32 (100.0)	29 (100.0)	30 (100.0)
중졸	3 (3.3)	0 (0.0)	2 (6.9)	1 (3.3)
고졸	58 (63.7)	13 (40.6)	25 (86.2)	20 (66.7)
대졸	30 (33.0)	19 (59.4)	2 (6.9)	9 (30.0)

χ^2=20.0428, df=4, prob=0.0005

4) 부산물 처리방식과 재활용 형태

91개 조사대상 업체에서는 각종 부산물을 폐기/매립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의 비중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업종별로 구분해 보면, 밤과 콩의 경우는 폐기/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사과의 경우는 재활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조사대상 업체의 부산물 처리방식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전체	91 (100.0)	32 (100.0)	29 (100.0)	30 (100.0)
폐기/매립	48 (52.8)	25 (78.1)	0 (0.0)	23 (76.7)
판매	1 (1.1)	0 (0.0)	1 (3.5)	0 (0.0)
재활용	40 (44.0)	6 (18.8)	28 (96.6)	6 (20.0)
기타	2 (2.2)	1 (3.1)	0 (0.0)	1 (3.3)

χ^2=52.3272, df=6, prob=0.0001

한편 재활용하는 경우를 보면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사료용은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6차산업화 활성화에 따른 부산물의 재활용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3-12> 조사대상 업체의 부산물 재활용 형태

(단위: 개소,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전체	40 (100.0)	6 (100.0)	28 (100.0)	6 (100.0)
퇴비	31 (77.5)	3 (50.0)	22 (78.6)	6 (100.0)
사료	9 (22.5)	3 (50.0)	6 (21.4)	0 (0.0)

χ^2=4.3625, df=2, prob=0.1129

3. 매출액 및 고용

1) 사업기간 및 매출액

91개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기간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13.6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밤이 10.97년, 사과가 19.00년, 그리고 콩이 11.40년이다. 따라서 6차사업화가 오래전부터 활성화된 곳은 사과분야라고 할 수 있고, 밤과 콩의 경우도 10년 전부터 6차산업화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작한 신활력사업의 시점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6차산업화는 신활력사업을 계기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업체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18,236.70만원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밤은 37,837.50만원으로 사과와 콩에 비해서 매출규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사과와 콩은 각각 8,8086.21만원, 7.141.33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가 오래전부터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가내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6차산업화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설립형태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6차산

업화 관련업체의 법인화와 규모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6차산업화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서 연간 지출하는 비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9.35만원으로 나타났고, 밤의 경우는 40.88만원, 사과는 30.52만원, 콩은 15.93만원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가 자연환경보호에 대해서 높은 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밤은 다른 품목에서 비해서 자연환경보호 의식이 높다고 하겠다.

<표 3-13> 조사대상 업체의 사업기간 및 매출액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사업기간(년)	13.67	10.97	19.00	11.40
매출액(만원)	18,236.70	37,837.50	8,086.21	7,141.33
자연환경보호 지출비용(만원)	29.35	40.88	30.52	15.93

매출액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가공이 41.2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재배가 29.29%, 직판이 17.47%, 그리고 체험관광이 11.67%로 나타났다. 따라서 6차산업화 업체의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은 차지하는 것은 가공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직판과 체험관광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6차산업화의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밤과 콩의 경우는 재배보다는 가공의 비중이 높은 반면, 사과는 가공보다 재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밤의 경우는 체험관광의 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사과는 직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콩은 가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6차산업화의 품목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구상이 요구된다. 즉 모든 분야에서 1차, 2차, 3차의 융복합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일 바람직할 것이다.

<표 3-14> 조사대상 업체의 매출액의 구성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재배	29.29	20.47	47.93	20.67
가공	41.24	42.91	12.07	67.67
직판	17.47	15.78	27.07	10.00
농가식당	0.00	0.00	0.00	0.00
체험관광	11.67	20.84	11.90	1.67
숙박	0.33	0.00	1.03	0.00
기타	0.00	0.00	0.00	0.00

2) 고용실태

91개 조사대상업체의 평균 고용인원은 1.7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정규인력은 1.44명이고, 비정규인력은 0.26명이다. 그리고 기술수준별로 구분해 보면, 전문인력은 0.52명이고, 단순인력은 1.19명이다. 한편 그때 그때 일이 있을 때 고용하는 일용직 인력은 평균적으로 3.31명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 관련업체는 평균 1.5명을 고용하는데, 단순인력의 정규직원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밤, 사과, 콩의 경우에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우선 밤의 경우 평균 고용인원은 1.94명이고, 정규인력은 1.75명, 비정규인력은 0.19명, 전문인력은 0명, 단순인력은 0.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는 평균 고용인력이 1.83명이고, 정규인력은 1.59명, 비정규인력은 0.24명, 전문인력은 1.59명, 단순인력은 3.66명이다. 그리고 콩의 경우는 평균 고용인력이 1.33명이고, 정규인력은 0.97명, 비정규인력은 0.37명, 전문인력은 0.03명, 단순인력은 0명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6차산업화로 인한 고용창출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의 인력을 해당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촌지역사회에서 한정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단순인력의 비정규적인 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은 1차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는 부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표 3-15> 조사대상 업체의 고용인원

(단위: 명)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총인원		1.70	1.94	1.83	1.33
정규인력	소계	1.44	1.75	1.59	0.97
	자기마을	0.84	0.28	1.31	0.97
	해당읍면	0.08	0.13	0.10	0.00
	해당시·군	0.36	0.91	0.14	0.00
	충남도	0.13	0.38	0.00	0.00
	타지역	0.03	0.06	0.03	0.00
	해외	0.00	0.00	0.00	0.00
비정규인력	소계	0.26	0.19	0.24	0.37
	자기마을	0.19	0.19	0.00	0.37
	해당읍면	0.00	0.00	0.00	0.00
	해당시·군	0.08	0.00	0.24	0.00
	충남도	0.00	0.00	0.00	0.00
	타지역	0.00	0.00	0.00	0.00
	해외	0.00	0.00	0.00	0.00
일용직	소계	3.31	3.00	3.48	3.47
	자기마을	2.95	2.66	3.07	3.13
	해당읍면	0.36	0.34	0.41	0.33
	해당시·군	0.00	0.00	0.00	0.00
	충남도	0.00	0.00	0.00	0.00
	타지역	0.00	0.00	0.00	0.00
	해외	0.00	0.00	0.00	0.00
전문인력	소계	0.52	0.00	1.59	0.03
	자기마을	0.43	0.00	1.31	0.03
	해당읍면	0.03	0.00	0.10	0.00
	해당시·군	0.04	0.00	0.14	0.00
	충남도	0.00	0.00	0.00	0.00
	타지역	0.01	0.00	0.03	0.00
	해외	0.00	0.00	0.00	0.00
단순인력	소계	1.19	0.06	3.66	0.00
	자기마을	0.98	0.06	3.00	0.00
	해당읍면	0.13	0.00	0.41	0.00
	해당시·군	0.08	0.00	0.24	0.00
	충남도	0.00	0.00	0.00	0.00
	타지역	0.00	0.00	0.00	0.00
	해외	0.00	0.00	0.00	0.00

3) 원재료 비중과 상품종류

91개 조사대상업체가 생산하는 6차산업화 제품에서 원재료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71.75%인 것으로 나타났다. 6차산업화 품목에서 원재료의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3가지 유형에서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밤의 경우는 66.22%, 사과는 65.45%, 그리고 콩은 83.73%이다. 따라서 콩은 다른 품목에서 비해서 원재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다.

<표 3-16> 조사대상 업체의 원재료 비중

(단위: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원재료 비중	71.75	66.22	65.45	83.73

91개 조사대상업체의 상품종류는 살펴보면, 재배작물은 2.35개, 가공품은 2.87개, 직판상품수는 2.62개,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1.77개, 숙박프로그램은 0.02개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보면, 2~3개의 작물을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2~3개의 가공품을 생산해 직판하고 있고, 2개 정도의 체험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를 품목별로 구분해 보면, 밤은 재배작물이 3.47개, 가공품이 5.41개, 직판상품수가 3.94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2.97개이다. 그리고 사과의 경우는 재배작물이 2.41개, 가공품이 1개, 직판상품수가 2.07개.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2.10개이다. 그리고 콩은 재배작물이 1.10개, 가공품이 1.97개. 직판상품수가 1.73개이다.

<표 3-17> 조사대상 업체의 분야별 상품종류

(단위: 개)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재배작물	2.35	3.47	2.41	1.10
가공품	2.87	5.41	1.00	1.97
직판상품수	2.62	3.94	2.07	1.73
농가식당 메뉴	0.00	0.00	0.00	0.00
체험관광 프로그램	1.77	2.97	2.10	0.17
숙박프로그램	0.02	0.00	0.07	0.00
기타	0.00	0.00	0.00	0.00

이상을 종합해 보면, 6차산업화 업체들의 재배작물, 가공품수는 적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직판상품수와 체험관광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찬산업화의 상품을 종합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과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생산비용의 구성

6차산업화 1개 제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구성을 살펴보면, 원재료가 51.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인건비로 14.67%이다. 그리고 부재료는 10.29% 등이다. 그 외 설비비, 포장비, 운송비, 홍보비, 기타 비용은 5%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밤, 사과, 콩의 경우도 거의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생산비용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원재료와 인력이 대부분 농촌마을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6차산업화가 농촌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6차사업화를 활성화함에 있어서 원재료를 지역 내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육성 및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부재료를 어떻게 공동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18> 조사대상 업체의 생산비용 구성

(단위: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주 원재료	51.76	45.34	63.03	47.70
부재료	10.29	11.13	4.07	15.40
설비비	5.40	3.44	9.48	3.53
포장비	4.09	3.81	4.59	3.90
운송비	4.35	3.06	5.66	4.47
인건비	14.67	13.78	10.46	19.27
홍보비	4.08	4.97	3.62	3.57
기타	5.86	14.47	0.17	2.17

4. 지역자원의 확대

6차산업화의 자원 확대 정도를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사회적자원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6차산업화는 농사(87.6)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의 자원에 대한 확대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밤(89.4), 사과(100), 콩(74)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산업적 자원의 확대가 57.6으로 가장 낮고, 그 다음으로 역사문화자원(60.2), 사회적 자원(62.2), 그리고 자연경관자원(6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충남지역의 6차산업화는 해당 밤, 사과, 콩만 활용해 6차산업화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산업적 자원, 역사문화자원, 자연경관자원, 그리고 사회적 자원을 6차산업화 과정에 적절히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농업이외의 다른 자원을 6차산업화에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마련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표 3-19> 조사대상 업체의 지역자원 확대

(단위: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산업적 자원	소계	57.6	60.2	53.2	59
	농사	87.6	89.4	100	74
	가축사육	41	45	35.8	42
	특용작물생산	54.6	61.8	43.4	57.4
	시설농업	58.4	59.4	55.2	60.6
	특산물생산	60	68.2	51.8	59.4
	농가가공시설	67.4	63.2	66.2	73.4
	공업시설	41.4	46.2	38	39.4
	판매시설	62.2	61.8	45.6	78.6
	인공레저자원	45.4	47.6	42	46.6
역사문화자원	소계	60.2	58.8	55.8	66
	전통건조물	54.8	43.8	44.8	76
	전통풍습	55.4	65	67.6	33.4
	향토음식	70.6	67.6	55.2	88.6
자연경관자원	소계	66	69.4	67.8	60.8
	환경자원	72.8	69.4	67.6	81.4
	경관	66.4	75	64.2	59.4
	수자원	68.8	69.4	82	55.4
	식물자원	76.4	81.2	82.8	65.4
	동물자원	45.8	51.8	42	42.6
사회적 자원	소계	62.2	61.8	67.2	57.6
	농업시설	66.2	55.6	76.6	67.4
	네트워크	68	71.8	71	60.6
	공공시설	58	58.2	59.4	56.6
	숙박시설	52	56.2	51.8	48
	공동체활동	64	66.2	66.8	58.6
	씨족세시풍속	52.4	51.2	53.2	52.6
	지역문화활동	60.2	58.8	65.6	56.6
	체험시설	70.4	72.6	80	58.6
	생산문화활동	63	61.2	73.2	55.4
	공동체조직	67	66.8	73.8	60.6
전체	평균	61.5	62.55	61	60.85

5. 지역자원의 활용

91개 조사대상업체이 6차산업화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역 내 다른 주체로부터 자원을 활용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재료의 지역 내 의존비율은 22.64%에 불과하다. 이는 결국 주요 원재료는 자가 재배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6차사업화의 규모화를 통해서 원재료의 지역 내 공급체계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기타 농산물의 경우는 지역 내 구매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6차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부수적인 농산물을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메커니즘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식품첨가물, 종묘 및 씨앗, 농자재, 농기계 등은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들 품종은 지역 내의 상점을 통해서 공급되는 재화이기 때문에 6차산업화로 인해 지역 내 소규모 상점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제조기기는 지역 내 공급비중이 52.05% 수준이다. 밤의 제외한 사과와 콩의 경우는 제조기기의 지역 내 의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제조기기를 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제조기기의 정비를 위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공/체험시설의 제작에 대한 지역 내 의존비율은 37.69%이다. 따라서 가공/체험시설을 제작하거나 보수하는 산업의 양성도 지역 내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섯째, 포장재 및 디자인의 경우 지역 내 공급비중이 60% 내외이다. 그러나 실제 포장재 생산 및 디자인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대부분 포장재를 공급해 주는 상점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3개의 시·군을 묶어서 포장재 및 디자인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비료, 에너지, 택배 및 운송, 은행, 세부 등은 지역 내에서 대부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6차산업화업체와 택배 및 운송업체, 그리고 은행, 세무가 보다 효과적인 업무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확인과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여덟째, 특허, 법률 등의 고차원적 서비스업은 지역 내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특허 및 법률에 대한 충남도 차원의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홉째, 식품위생검사, 연구개발 및 컨설팅, 홍보 등은 지역 내에서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6차산업화 관련된 지원기능이 시·군차원에서 구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열 번째, 생산자단체, 가공협회, 정부정책, 교육훈련도 시·군차원에서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정부정책과 교육훈련이 시·군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표 3-20> 조사대상 업체의의 지역자원 활용

단위 : %

구분		전체					밤					사과					콩				
		자체	해당시·군	충남	충남외	수입	자체	해당시·군	충남	충남외	수입	자체	해당시·군	충남	충남외	수입	자체	해당시·군	충남	충남외	수입
원재료	원재료(원물)	68.1	22.6	5.4	3.9	0.0	64.1	35.9	0.0	0.0	0.0	100.0	0.0	0.0	0.0	0.0	41.7	30.3	16.3	11.7	0.0
	기타 농산물	56.5	41.0	2.2	0.3	0.0	53.8	45.3	0.0	0.9	0.0	62.1	37.9	0.0	0.0	0.0	54.0	39.3	6.7	0.0	0.0
	식품첨가물	0.0	71.2	19.6	9.2	0.0	0.0	46.7	26.7	26.7	0.0	0.0	94.8	1.7	3.5	0.0	0.0	60.7	33.3	6.0	0.0
	종묘/씨앗	2.5	86.0	11.5	0.0	0.0	3.8	85.7	10.5	0.0	0.0	0.0	100.0	0.0	0.0	0.0	4.1	72.1	23.8	0.0	0.0
	농자재	0.0	88.7	11.3	0.0	0.0	0.0	97.5	2.5	0.0	0.0	0.0	100.0	0.0	0.0	0.0	0.0	71.4	28.6	0.0	0.0
	농기계	0.0	79.0	18.0	3.1	0.0	0.0	63.0	32.0	5.0	0.0	0.0	100.0	0.0	0.0	0.0	0.0	69.0	26.2	4.8	0.0
제조·가공	제조기계	0.0	52.1	38.8	9.2	0.0	0.0	29.7	56.2	14.1	0.0	0.0	76.6	23.5	0.0	0.0	0.0	50.0	36.7	13.3	0.0
	가공/체험시설(공장, 창고)	20.9	37.7	36.0	5.4	0.0	9.4	30.0	48.4	12.2	0.0	3.5	60.0	36.6	0.0	0.0	50.0	24.3	22.3	3.3	0.0
	포장재	1.1	59.3	36.3	3.3	0.0	3.1	57.8	30.9	8.1	0.0	0.0	43.1	56.9	0.0	0.0	0.0	76.7	22.0	1.3	0.0
	디자인	2.3	60.1	36.3	1.3	0.0	4.7	50.9	40.6	3.8	0.0	0.0	44.1	55.9	0.0	0.0	2.0	85.3	12.7	0.0	0.0
	비료	0.0	91.1	8.9	0.0	0.0	0.0	91.4	8.6	0.0	0.0	0.0	100.0	0.0	0.0	0.0	0.0	82.1	17.9	0.0	0.0
	에너지	1.1	95.6	2.9	0.4	0.0	0.0	96.9	3.1	0.0	0.0	3.5	96.6	0.0	0.0	0.0	0.0	93.3	5.3	1.3	0.0
서비스	택배/운송	0.8	99.2	0.0	0.0	0.0	2.2	97.8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은행	0.0	99.6	0.4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0	98.7	1.3	0.0	0.0
	특허	0.0	16.7	50.0	16.7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	0.0	50.0	0.0
	법률	0.0	39.1	50.7	10.2	0.0	0.0	25.0	75.0	0.0	0.0	0.0	55.5	44.5	0.0	0.0	0.0	7.1	60.0	32.9	0.0
	세무	2.2	85.7	9.9	2.2	0.0	6.3	93.8	0.0	0.0	0.0	0.0	89.7	10.3	0.0	0.0	0.0	73.3	20.0	6.7	0.0
	식품위생검사	0.0	95.6	4.4	0.0	0.0	0.0	100.0	0.0	0.0	0.0	0.0	96.6	3.5	0.0	0.0	0.0	90.0	10.0	0.0	0.0
	연구개발 및 컨설팅	5.3	51.5	32.6	8.5	0.0	35.7	50.0	0.0	0.0	0.0	0.0	61.0	39.0	0.0	0.0	0.0	27.3	36.4	36.4	0.0
	홍보	34.8	55.4	6.9	2.9	0.0	40.0	47.2	10.0	2.8	0.0	59.3	37.6	2.1	1.0	0.0	5.7	81.3	8.3	4.7	0.0
제도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19.7	72.5	6.7	1.1	0.0	18.1	70.9	10.0	0.9	0.0	39.7	60.3	0.0	0.0	0.0	2.0	86.0	9.7	2.3	0.0
	가공협회(연구회 등)	0.6	79.2	18.6	1.7	0.0	1.6	60.9	35.0	2.5	0.0	0.0	100.0	0.0	0.0	0.0	0.0	78.7	19.0	2.3	0.0
	정부정책	0.3	61.2	28.4	10.2	0.0	0.0	31.9	40.9	27.2	0.0	1.0	81.4	17.6	0.0	0.0	0.0	72.8	25.3	1.8	0.0
	교육훈련	0.0	74.5	23.6	1.9	0.0	0.0	61.3	34.1	4.7	0.0	0.0	76.6	23.5	0.0	0.0	0.0	86.7	12.7	0.7	0.0
전체	총계	9.0	67.3	19.1	3.8	0.0	10.1	61.2	19.4	4.5	0.0	11.2	71.3	17.3	0.2	0.0	6.6	66.9	18.9	7.5	0.0

제4장 농업6차산업을 위한 지역자원 활용 및 확대 전략

제1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활용 확대 공통 전략

1. 6차산업화 다변화 정책 방안 모색

2013년 7월에 6차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2014년 5월2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6차산업이 확대되었다. 6차산업법의 기본이념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6차산업의 일반적인 개념은 1차 산업으로서의 농촌자원과 2차산업으로서의 제조업, 3차 산업으로서의 소매업 등을 종합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있다(이병오, 2013). 따라서 법률과 정의에 의한 6차산업은 첫째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농가의 소득향상이며 두 번째로는 다양하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신 성장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지만 6차산업을 3년 동안 추진하면서 1차 자원을 단순 농산물 원물로만 여겨지는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 6차산업 인증자의 100%가 농산물 원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6차산업으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다. 이러한 정책 경향은 단순 농업경영이나 지역 농업의 수직적 다각화에 의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성과 중심적인 경향이 두드러질 수 있으며, 기존의 농업생산정책, 구조정책, 농촌산업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회 공동체 유지 강화, 농촌지역 내외의 상생협력과 건전한 농촌융복합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기존의 농촌산업화 정책에서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2. 정부정책 간 연계강화 및 단계적 발전 정책

박근혜 정부에서 6차산업화 정책이 농업의 중심 전략으로 추진되면서 3년 동안 6차산업 관련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183개[14]가 추진되고 있다. 추진주체도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유통공사, 농어촌공사, 산림청, 각 시·도 농업관련부서,

14) <표3> 참조

기타 각 시·도 공공(연구)기관 등 농업인은 6차산업화 정책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진행되는지 혼선이 일 수 있고, 사업 간에도 농진청의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과 충청남도의 두레기업(마을)과 같은 유사중복 사업이 생성되고 있다. 특히나 성과중심의 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미 6차산업화를 잘 추진하고 있던 농업경영체[15]에게 사업이 중점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사업도 추진주체만 다르면 비슷한 사업이더라도 한 경영체에게 중복 수진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6차산업 통합지원 조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들을 위계화하고 지원내용을 차별화 하며, 수준별 차등화, 단계별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제2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확대 전략

1.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정책

농업의 6차산업화를 잘 하는 것은 앞서 설명되었듯이 본인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잘 가공해서 잘 판매하는 것만이 아니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잘 활용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자원이라 하면 농림수산물도 있겠지만, 농촌에 산재한 자연자원(동물, 식물, 물, 지형 등)과 대대로 내려오는 지역의 역사·문화·풍습도 있겠고, 사람도 있으며,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 무형(바람, 햇빛, 경관, 공기)의 자원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원을 농업과 지역과 연결해서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6차산업인 것이다.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6차산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조사가 필요하고, 혹은 지역자원을 창조해야한다. 지역자원의 발굴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전문가,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촌지역에는 도시지역에서 부족한 자연자원

15) 우리나라 농가당 평균 조수입은 1,200만원 수준인데 반해, 충남 6차산업 농가의 연평균 매출액은 19억이고 1억원 이상이 전체의 63%를 차지하며 전체 평균 매출액은 18억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매출액 규모	경영체 수(%)	경영체 수(%)	평균(백만)
~5천만원 미만	265(19.8)	503(37.6)	50
5천만원~1억원	238(17.8)		
1억원~5억원	473(35.4)	592(44.3)	318
5억원~10억원	119(8.9)		
10억원~50억원	169(12.6)		
50억원~100억원	41(3.1)	242(18.1)	9,528
100억원~500억원	29(2.2)		
500억 이상	3(0.2)		
합 계	1,337(100.0)	1,337(100.0)	1,897

이나 전통자원이 풍부한 것이 특징임으로 이러한 자원을 화용하여 어떻게 수익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김용렬, 2014). 둘째로 6차산업 인증제도 상에서 지역자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해야한다. 현재 6차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농산물의 수입대체, 대기업 제품과 경쟁력 가능, 신 시장 개척, 기존에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체로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지역자원을 농산물로 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역자원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사업자가 있는 경영체로 한정하고 있어, 마을공동체, 개별농가 등 6차산업 인증을 받는데 제약이 따름으로 6차산업 인증 요건의 범위를 폭 넓게 확장하여 지역자원이 최대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6차산업 통합 정책 지원 조직 육성

농업의 6차산업화나, 다각화 혹은 다기능 농업화 전략을 취하고자 할 경우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농업과 관련된 포괄적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6차산업 정책이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6차산업화 지원과 관련된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양현봉, 2015). 현재 6차산업을 추진하는 정부조직은 농식품부 농촌산업과에서 총괄하며 충남은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에서 충남의 6차산업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산업과 관련된 정책은 주로 향토산업육성, 복합자원화사업과 같은 농업의 식량자원을 산업화자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사업인데 주로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충남의 86개 6차산업 인증 농업경영체를 조사해 보면 전체 인증 농가 중 99%가 농산물 가공 중심의 6차산업 형태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유럽은 EU가 출범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을 추진되고 있고 지역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LEADER(1993~2012, Liaison Entre Actions de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Rurale)프로그램이 2012년 까지 시행되었는데 LEADER 프로그램을 연명하는 단계에서 6차산업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농업과 농촌이 농업 생산 활동을 넘어서는 경제활동(정현희, 2013)으로 정의되는 다기능 농업(multifunctional agirculture)이 진행되고 있다. 6차산업이 2차 가공 중심 산업에 집중하는 것에 비해 다기능 농업은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치매환자나, 알콜이나 약물 중독자에게 맞춤 치료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유농업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수와 매출액이 연평균 17.98%, 33.3%씩 증가하였다. 마을 주민의 아이들과, 도시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농장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농가 수는 매년 두 배씩 증가하고 있고 매출액 또한 연평균 123.6%가 증가하고 있어 농업이 점차 사회서비스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돌봄 농장은 마을 주민의 아이들이나 도시의 아이들을 정식 등록된 어린이 돌봄 농장에 맡겨 자연에서 뛰어 놀 수 있는 학습을 제공한다.

<표 4-1> 네덜란드 다기능 농업 형태 및 경제성과 지표

구분	농가수(company)				매출액(year), 백만유로			
	2007	2009	2011	평균증가율(%)	2007	2009	2011	평균증가율(%)
치유농장	**756**	**870**	**1,050**	**17.9**	**45**	**63**	**80**	**33.3**
돌봄 농장	**20**	**64**	**209**	**223.3**	**4**	**14**	**20**	**123.6**
직판장	**2,580**	**3,000**	**3,300**	**13.1**	**89**	**128**	**147**	**28.5**
농촌관광	13,700	13,660	14,000	1.1	90	79	86	-2.3
레크레이션	2,432	2,240	2,884	8.9	92	121	156	30.2
교육농장	500	500	800	26.5	1.5	1.7	2.2	21.1
계					322	407	491	23.5

자료. 2013년 정현희외를 수정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사회안전망 서비스가 농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덜란드는 농업과 사회안전망과의 연결에 있어서 가장 앞선다. 농업은 농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치유농업법을 제정하고, 치유농장과 국민건강보험을 연계해서 치유농장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병원과 같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육농장 또한 일반적으로 도시의 돌봄 교실에만 지급되는 교육보조금을 교육농장에도 똑같이 지급해 교육농장이 안정적인 수입원 창출이 가능하게 하였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 농업의 핵심 전략으로 6차산업 추진을 내걸고 있는 시점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친환경농업, 사회적서비스, 농촌관광 등의 정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지원조직은 농촌산업분야(농촌산업정책), 분열된 공동체 회복과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분야(삶의질 향상정책), 마을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전을 위한 분야(마을 만들기 정책) 마을과 경관과 자연을 보전하여 다원적 기능을 창출하는 분야(환경친화농업정책)를 융합하는 포괄적 지원 조직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그리고 지방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중간 지원조직 구성에 그 희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농업·농촌 정책 수립

OECD는 「농업과 환경의 정책통합」이라는 1993년도의 정책보고서에서 친환경농업과 유사한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농업생산력을 확보하면서 환경상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농업기술과 농업 체계로 규정하며, 네 가지 조건으로 ① 경제적으로 성립하는 농업생산체계라는 것 ② 생산수단으로서 자연자원의 기반을 유지·향상시키는 것 ③ 농업이외의 생태계를 유지·향상시키는 것 ④ 농촌의 쾌적한 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김창길, 2007).

우리나라의 농업 환경 정책은 1994년 농림부에 환경농업과가 신설되고 1997년 친환경 농업 육성법이 재정되면서 친환경 농업이라는 농업정책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농업 정책은 아직도 논의거리로 각 국가별로 친환경 농업 정책의 의미가 다르다. 실제로 200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친환경 농업의 개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유기농업을 친환경농업 이라는 개념으로 여기고 있어 개념 정립이 필요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현재까지 친환경 농업은 농업 생산 방식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농촌의 경관과, 지형, 주거 등과 같은 농촌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음으로 친환경 농업 정책보다는 환경친화적 농업 농촌 정책이라는 정책을 수립하여 농촌의 종합적인 환경 농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4. 농촌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금 정책

2016년 우리나라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재정규모는 19.4조원으로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2005년 이후부터 연평균 2.5%씩 증가하고 있으나 총지출 대비해서는 2005년도 6.8%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업부분의 예산 비중은 2016년 기준 양곡관리·농산물유통이 2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농업체질강화 21.7%, 농가소득·경영안정이 21.5%, 농업생산기반조성이 15.4%, 농촌개발·복지증진이 12.3% 그리고 식품업이 5.9% 로 배분되어 있다.

전체 농업예산 중에서 우리나라의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기준 19.7%로 스위스 75%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전체 직불금 중 63%가 쌀에 투입되는 고정직불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 전체 예산 중 양곡관리·농산물유통이 가장 큰 23.4%를 차지하여 농업생산물의 양적 성장 위주의 농정이 아직까지도 추진되고 있다. 농촌환경, 경관 및 역사 ·문화자원 보전을 위한 환경직불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문화·경관

(kulturlundschaft)[16] 직불금으로 농가마다 농업 소득의 80%[17]를 직불금으로 보전 받고 있다. 금액으로는 평균 3만 유로이며 우리나라 농가 평규 소득 1천1백만원의 3배에 달하는 소득을 오로지 문화·경관 직불금으로 벌어들이고 있다(김대홍 : 문화 경관 직불금 베푸는 독일 켐덴 농업국, 2016). 유럽도 우리나라와 같이 과거 생산실적에 따른 목적성 지불 정책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2003년 EU 공동농업정책이 시행되면서 생산규모에 연계되지 않고 경지규모가 크거나 작거나에 구애받지 않는 생산중립적 단일직불제(SPS: Single Payment Scheme)를 적용하여 농업 농촌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농촌에서 생성되는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확대를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고, 지역자원을 보전하고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비시장 재화(NTC : None Trade Concern)로 직불정책제도를 경관개선, 역사·문화 및 자연환경, 그리고 생물다양성과 같은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원들은 농산물과 더불어 6차산업 정책의 기초자원들이다.

제3절 6차산업 지역자원 활용 전략

1. 규모화와 법인화 유도

지금까지의 6차산업화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자기가 가공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6차산업화 업체는 소규모이고 제한 적인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실제 6차산업화 과정에 필요한 농산물은 지역내에서 교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밤의 경우는 35.94%만이, 콩은 30.33%만이 지역내에서 교류되었고, 사과의 경우는 지역 내에서 교류된 비중이 0%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가 재배한 것만을 활용해 가공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역 내에서 관련 원재료를 공급받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주원재료가 아닌 기타 농산물의 경우는 주원료에 비해서 지역내에서 교류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예컨대 밤의 경우는 45.31%, 사과의 경우는 37.93%, 그리고 콩의 경우는 39.33%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재료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비중이 원재료에 비해서

16)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직불금 정책
17) 바이에른주 직불금 지불 현황(직불금 예산은 EU 50%, 독일정부 30%, 주정부 20% 분담)

낮기 때문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공급을 받아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2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6차산업화 업체는 기본적으로 영세하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6차산업화의 규모가 커진다면, 필요로 하는 원재료 혹은 부재료를 자신이 직접 생산해 조달하는데 한계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6차산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6차산업화를 법인화로 전환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난 10년간 6차산업화는 영세화, 소규모화라는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기업화전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유사한 6차산업화 업체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서 6차산업화가 규모화, 법인화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6차산업화가 규모화, 법인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참여하는 주체들은 생산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고, 법인화된 6차산업화 업체는 가공과 판매에 전력할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6차산업화 과정에서 1개의 농산물만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콩을 이용해 된장을 만들 때, 찹쌀이 필요한 것처럼 6차산업화 과정에서 복수의 농산물이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주요 6차산업화 품종의 가공과정에서 필요한 부수적이 농산물의 계약재배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포장·디자인 산업 육성 및 시설정비 인력의 양성

6차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설비는 대도시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각종 설비는 가공기계를 비롯하여 제조시설, 포장재, 디자인 등을 꼽을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공기계의 52.05%, 제조시설의 37.69%, 포장재의 59.34%, 그리고 디자인의 69.11%를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부문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것인 동시에 지속적인 정비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이다. 결국 6차산업화 과정에서 이들 부문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6차산업화의 성과가 모두 후방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조사결과에 이하면 포장재와 디자인의 경우 지역 내에서 공급받는 비중이 약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 내에서 포장 및 디자인의 기능이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포장 및 디자인은 6차산업화 상품의 이미지를 결정하게 될 뿐 아니라, 지속적·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재화이기도 하다. 따라서 향후 우선적으로 6차산업화와 관련된 포장 및

디자인산업의 육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포장 및 디자인업체의 관계자에 대한 재교육 및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6차산업화정책에서는 해당 업체의 포장 및 디자인을 직접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직접적 지원보다는 해당 지역에 있는 포장 및 디자인 업체를 통한 간접 지원이 더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가공기계 및 제조시설과 관련된 업체의 육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동 분야는 농촌지역에서 활성화되기 어려운 부문도 있다. 만약 가공기계와 제조시설에 대한 업체 육성이 지역차원에서 곤란하다면, 가공기계와 제조시설의 보수를 위한 인력양성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6차산업화 가공기계를 정비·보수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 업체들이 6차산업화 업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6차산업화 가공업체만을 육성하는 정책에서 지역 내에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경제정책으로 정책의 영역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포장 및 디자인 산업의 육성과 각종 6차산업화 시설의 정비인력의 육성은 개별 시·군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충남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대학과 연계된 산학연관 시스템 구축

현재 6차산업화는 농촌사회에서 매우 활성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6차산업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특허 및 법률 서비스, 세무 서비스 지원,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홍보 등은 대부분 도시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생산자서비스와 연구개발 중에서 현재 농촌지역에서 공급이 가능한 분야는 세무와 연구개발, 그리고 홍보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최근 귀농귀촌과 젊은층의 농촌으로 유입 등으로 인해 다양한 경력을 갖춘 인재가 농촌지역에 유입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법률과 세무, 그리고 연구개발 및 홍보 등을 담당할 수 있는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 6차산업화의 연구개발 및 컨설팅이 지역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대학이 있는 경우는 의무적으로 6차산업화와 관련된 전공과 연구기관을 설립·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지역대학에서 6차산업화와 관련된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6차산업화 업체 중심의 정책에서 지역대학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함께 접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4. 시・군 차원의 6차산업화 계획 수립

현재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에서 시・군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6차산업화 정책은 개별 주체와 충남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6차산업화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산자단체, 가공협회, 교육훈련 등은 대부분 시・군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현재의 6차산업화 정책은 경쟁력 있는 업체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군의 경제정책과 유기적인 접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6차산업화 업체들이 지역에 기반을 두고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현재 개별 업체 중심의 6차산업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시・군의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6차산업화 정책이 재구조화되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 즉 시・군의 6차산업화 정책의 큰 그림이 구상된 이후 개별 업체에 대한 6차산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재 특정 시・군의 6차산업화 업체가 서로 상관성이 거의 없음에서도 단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별 시・군 차원에서 6차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3-5년의 안정적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6차산업화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6차산업화 업체의 자기부담의 사전에 협의하여 관련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총 5장으로 2장에서 6차산업 현황분석, 3장에서 6차산업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6차산업 정책은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광역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를 지정하였고, 전국 6차산업 자원조사 및 우수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6차산업 인증도 부여하였고 인증 경영체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14개 안테나숍을 설치하는 등 6차산업 확대를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6차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환점이 도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첫째로 2장 현황분석에서 6차산업 정책이 각 기관별로 새로운 사업들이 생겨나고 있어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는 점에 대해서 피력하였고 창업이나 도입단계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부족한 반면 성장위주의 정책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성장위주의 사업들은 제조·가공 지원에 90%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제기하였다.

둘째로 3장 구조분석에서는 충남의 지역특화분석을 시행하여 충남의 일반적인 농업 특성을 정리하였고 충남의 대표 농업 특화 자원으로 서천 쌀, 공주 밤, 금산 약용작물, 부여 시설작물(수박, 멜론 등), 논산 시설작물(딸기), 예산 사과임을 밝혔다. 또한 충남은 전국에서 콩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아 6차산업으로 장류 사업이 많은 이유가 있었고, 천안 아산 지역의 과수 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산이 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수도권에 근접하였음에도 명성이 나주만 못한 것에 대해서 천안 아산지역을 호두까지 포함하는 과수산업 중심지로 홍보를 지속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에서는 6차산업 정책이 지금까지도 '보조금', '지원'과 같은 키워드가 높은 빈도를 차지해 6차산업도 보조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고, 전체 키워드를 델파이 분석법을 통해 지역자원 분류표에 연계하여 분석한 결과 현황분석에서도 제기되었던 2차 제조·가공 및 산업화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본 연구가설에서 제기했던 대로 6차산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가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밤, 사과, 장류 6차산업을 하고 있는 91개 농업 경영체 설문조사하여 지역자원의 활용과 확대 차원을 χ^2-test와 분산분석을 시행한 결과에서도 지역자원의 확대 측면에서는 농업이라는 1차 생산 활동에 의한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외 자원의 활용 측면은 미약

한 것으로 밝혀졌고, 상대적으로 지역자원의 활용 측면에서는 농산물은 자가 생산 비중이 높은 반면 전체적으로 지역의 자원이 활용되고 잘 되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외 포장재나, 비료,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자원 활용에 있어서는 지역의 전문가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리에 대한 가치산정은 되지 않았지만, 외부자원의 지역 내 유입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도 상당할 것이고, 비용의 외부유출에 따른 지역총생산 감소부분도 상당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음으로 지속적인 지역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에 따라 6차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면 첫째로 6차산업의 정책을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충청남도와 농식품부의 농촌산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농업 개발국(소) 혹은 사무국 등의 형태로 각종 사업들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체계적인 정책추진이 가능해야한다. 둘째로 사업들이 성과 위주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속적인 농촌개발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초자원 보전 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강화를 위한 직불금 정책이나, 보전, 활용 정책이 기초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자원에서 지역 특화자원을 성장시키기 위한 6차산업 정책 대안이 지역 시·군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충남에서는 지역자원 활용 차원에서 포장, 디자인, 컨설팅, 제조기기 분야의 전문가를 지역에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본 전략에서는 지역 대학의 노력 또한 매우 중요하고 지역 장학생 제도를 만들어 우수 인적 자원이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OECD, 1999,Cultivating Rural Amenities –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Paris.

OECD, 2003, Agriculture, Trade and Environment: The Dairy Sector; Main Report, COM/AGR/CA/ENV/EPOC(2003)92.

金子郁容, 2010, “いいコミュニティの作り方”, コミュニティのちから－遠慮がちな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の發見.

櫻井淸一, 2011, 直賣型農業·農産物流通の國際比較, 農林統計出版.

日本建築學會, 2004, まちづくりの方法, 丸善.

佐藤滋, 2004, まちづくりとは何か, まちづくり教科書第1券 まちづくりの方く法, 丸善.

川上光彦, 1994, まちづくりの戰略, 山海党.

김경찬 외, 2015,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한일 정책 비교 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김대식, 2007, 어메니티자원과 인적자원을 고려한 농촌마을의 관광잠재력 평가기법 개발, 한국농촌계획학회.

김성훈 외, 2014, 6차 산업화 관련 정책 산업 추진실태 진단 및 정책 간 연계방안 연구,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응규, 2014, 농업6차산업화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과제, 농협경제연구소, CEO Focus 324호.

김주미 외, 2015, 농어촌 벤처 현황과 정책적 방향성, 한국EA학회(구 한국ITA학회), <정보기술 아키텍처연구> 12권 1호.

김창길, 2007, 친환경농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창길, 2007, 친환경농업정책의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충실 외, 2009, 대구・경북 지역농업의 특화분석, 농촌경제 제 33권 제1호, pp. 99-144.

네모토 마사쯔구, 2013 지역자원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방안: 일본 가미야마 정(神山町) 빈집재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지, 제1호, pp. 51-6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환 법률, 2015, 국가법령정보센터.

박정일 외, 2015, 농업 6차 산업화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 농업과학연구 42권 4호.

박창석 외, 2002, 농촌 어메니티 인식의 구조와 의미, 한국경제지리학회.

반기민 외, 2013, 충청북도 증평군을 중심으로 한 6차산업화 방안 연구, 충북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 24권 1호.

양현봉, 2015, 6차산업화 정책의 추진실태와 발전과제, 산업연구원.

오윤경 외, 2007, 농촌 어메니티 자원조사 연구, 농촌계획 Vol. 13, No. 1, pp. 1-9.

유학열 외, 2014, 제19장 창조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4 발표자료.

윤원근, 2010,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한국농촌지도학회.

이금동, 2015, 일본의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재고,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 47권 2호.

이병오, 2013, 농업, 농촌의 6차 산업화 정책과 시사점, 강원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강원농업생명환경연구> 25권 2호.

이병오, 2015, 6차산업화 정책의 점검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농정연구 55권.

이유경, 2014, 일본 농업 6차산업화 정책 현황과 과제 세계농업 제16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주연, 2015, 지역자원과 커뮤니티 개발을 기반으로 한 농산촌 발전 프로세스 도입 방안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정근하, 2011, 텍스트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미래예측 방법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현희, 2011, 농촌마을 어메니티 자원의 속성별 가치 평가: 농촌다움의 가치평가, 한국농촌계획학회, vol. 20, no. 4, pp.243-252.

정현희 외, 2013,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충남연구원.

조록환 외, 2013, 농업, 농촌 6차산업 정책 요구 분석, 20권 2호.

조순재 외, 2004, 농촌 어메니티자원을 활용한 마을테마 개발 사례 - 군산, 산청 농촌전통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조승현, 2013,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에너지 부문 사물인터넷 트렌드 분석.

최수명 외, 1997, 농촌계획지원용 지역자원평가시스템 구축 (1) - 자원평가 구성요소의 목표체계 구축, 한국농촌계획학회.

통계청, https://mdis.kostat.go.kr/index.do ,(MDIS).

한경수 외, 1999, 농촌계획지원용 지역자원평가시스템 구축 (4) - 사례지역 적용연구, 한국농촌계획학회.

부 록

[부록 1] 6차산업 정책 키워드분석 결과
[부록 2] 6차산업 정책 지역자원 조사표
[부록 3] 기관별 지원유형별 정책사업

[부록 1] 6차산업 정책 키워드분석 결과

사업	지원	마을	추진	6차산업	정비	제조	시·군	운영	지역	보조금	신청
751	339	218	197	185	177	177	137	135	135	134	124
농촌	식품	선정	체험	관리	관련	시·도	농림	이상	지자체	축산	보조사업
120	119	113	113	112	106	106	102	101	100	99	98
시설	시장	센터	분야	검토	제출	기준	포함	군수	승인	결과	경영
96	94	91	90	89	89	85	85	84	83	82	82
인증	사업자	제품	현장코칭	집행	필요	평가	조합	수립	사항	개발	코칭
81	79	79	77	75	75	74	73	69	66	63	63
산업	전문가	조성	활용	사업계획	작성	변경	내용	사용	설치	시행계획	구축
62	62	61	61	59	58	57	56	56	56	56	55
기타	완료	판매	프로그램	계획	농식품부	예산	시행	농어촌	조합원	주택	실적
55	55	54	54	53	53	53	52	51	50	50	49
지구	전문위원	제외	홍보	사업시행자	안테나	연계	구성	사업단	세부	신규	위탁
49	48	48	48	47	47	47	46	45	45	45	45
조사	해당	공동	매출액	시·군·구	입주	지방	지정	현황	가공	목적	확보
45	45	44	44	44	44	44	44	44	43	43	43
교부	교육	생산	실시	관광	단계	구입	기본계획	활성화	미만	분양	자부
42	42	42	42	41	41	40	40	40	39	39	39
자원	점검	파악	개선	국비	심사	유형	단위	일반	주요	6차	방법
39	39	39	38	38	38	38	37	37	37	36	36
컨설팅	토지	강화	기간	농업	마케팅	모니터링	법인	용도	유통	주민	향토
36	36	35	35	35	35	35	35	35	35	35	35
현장	공사	규모	기	예정자	건축	기관	대상	발굴	법률	역량	지급
35	34	34	34	34	33	33	33	33	33	33	33
여부	참여	취득	협의	접수	정산	상황	시장·군수	우수	조치	지원대상	구역
32	32	32	32	31	31	30	30	30	30	30	29

범위	보고	설립	업체	재산	통보	기술	내역	비용	사전	사후관리	성과
29	29	29	29	29	29	28	28	28	28	28	28
시설물	용지	육성	적용	도지사	배정	서식	항	결정	담당	주체	확인
28	28	28	28	27	27	27	27	26	26	26	26
농가	농산물	복합	시행령	자금	제한	준공	형태	계약	법령	신규사업	신청서
25	25	25	25	25	25	25	25	24	24	24	24
자료	정보	제공	조건	직매장	기반시설	부담	이행	자부담	지원사업	‘	금액
24	24	24	24	24	23	23	23	23	23	22	22
농업인	록	분기	서류	소득	수행	자가	재정	개월	경력	경비	기반
22	22	22	22	22	22	22	22	21	21	21	21
기초	상품	입점	자격	자체	전문	고용	국고	면적	방식	법	비
21	21	21	21	21	21	20	20	20	20	20	20
세부사업	유지	취소	보조	소비	소요	시	실태조사	위촉	유형별	의견	이후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19	19
체계	초과	품목	하기	활동	휴양	경관	공모	기입	농공단지	다양	반영
19	19	19	19	19	19	18	18	18	18	18	18
비중	사업시행	사업체	산업육성	식품산업	역할	온라인	창업	고시	기존	기타(	대지
18	18	18	18	18	18	18	18	17	17	17	17
보고서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시·도지사	신설	업무	원	이하	편성	구분	규정	농산어촌
17	17	17	17	17	17	17	17	17	16	16	16
농장	농축산물	보완	부지	불가	브랜드	세대	예정	전년도	종료	중요	지침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16
추가	한도	확정	가공품	고려	기업	단체	만족	매칭	발생	발전	별도
16	16	16	15	15	15	15	15	15	15	15	15
사유	설정	시스템	연간	원칙	융복	인건비	인허가	자문	장비	전체	종합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첨부	투자	하게	환수	‘년	2015	개요	검사	매입	법률」	상담	상시
15	15	15	15	14	14	14	14	14	14	14	14

소규모	소유권	위원	인력	일정	입주자	정비계획	지방자치단체	지역발전	참조	처분	추진위원회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14
테마	표시(√)하여	회당	희망	가격	국가	근거	기능	담보	당사자	방문객	상기
14	14	14	14	13	13	13	13	13	13	13	13
안내	애로사항	연도	예시	요건	월	장소	총사업비	추천	특화	판단	플랫폼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개별	개최	경제	공통	광역시	구청장	근무	기재	메뉴	문화	반환	부여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사례	사이트	시행지침	여건	연락처	예산신청	요구	위치	전원	제시	중심지	진행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12
체결	촉진	최대	특별	품평회	허용	확대	효율	RD	공동이용	공원	관광농원
12	12	12	12	12	12	12	12	11	11	11	11
교환	권역	농식품	대표자	동의	디자인	민간	보유	분석	시설비	요청	위반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위배	일부	전문기관	제주	조성사업	조직	주관	중심	지표	진입	착수	투입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혁신	협약	2014	www	가공시설	가공업체	공간	기획	다음	담당자	도모	반납
11	11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비율	상의	생태	생활	심의	영농	유의사항	이전	익년	입찰	정책	주택건설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준수	지역전략	지적재산권	표시	항목	향상						
10	10	10	10	10	10						

[부록 2] 6차산업 정책 지역자원 조사표

충남 6차산업화 지역자원 활용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에서는 6차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충남 6차산업화 지역자원 활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협조해 주시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설문지의 업체/개인 정보는 연구자료로써만 활용되며 절대 개인/업체 정보를 유포하거나 배포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의 : 충남연구원 041 840 1215(정현희 연구책임자)

2016. 11.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Ⅰ. 업체의 일반특성

1. 귀 업체의 명칭은? (　　)

2. 귀 업체의 소재지는? (　　시) (　　읍)

3. 귀 업체의 설립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개인사업자 ② 농업경영체 ③ 영농조합법인 ④ 농업회사법인 ⑤ 주식회사법인
⑥ 기타(　　)

4. 귀 업체는 설립연도는? (　　년)

5. 귀 업체는 종업원수는?
① 상근직(　　명) ② 비상근직(　　명)
※ 비상근직에는 일용직은 제외해 주세요.

6. 귀 업체는 연간 매출액은(2016년 총매출 예상액)? (　　만원)

7. 귀 업체 대표의 학력은?
① 초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8. 귀 업체 대표의 귀농여부는?
① 귀농하였다(귀농한 연도는　　년) ② 귀농하지 않았다.

9. 귀 업체에서 고용한 인력의 당초(채용 전) 거주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구분		자가 마을	해당 읍면	해당 시·군	충남도	타 지역	해외
고용 형태	정규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비정규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일용직	명	명	명	명	명	명
기술 수준	전문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단순인력	명	명	명	명	명	명

Ⅱ. 6차 산업의 현황

1. 귀 업체의 주요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① 밤 ② 사과 ③ 콩 ④ 기타

2. 귀 업체의 주요 상품에 투입되는 주요 원재료(사과, 밤, 콩 등)가 상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입니까? (%)

3. 귀 업체의 상품의 유형은? 해당되는 것은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농산물 ② 가공식품 ③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비식품류)
   ④ 수제 가공품(목공예, 장식품 등) ⑤ 농가식당 ⑥ 농촌관광(교육포함)
   ⑦ 숙박 ⑧ 기타( )

4. 귀 업체의 매출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다음 각각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구성비는 어떠합니까?

총매출액	100%
재배	%
가공	%
직판	%
농가식당	%
체험관광	%
숙박	%
기타	%

5. 귀 업체에서 다음의 분야별 상품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재배작물(축산 포함)	개
가공품	개
직판상품수	개
농가식당 메뉴	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
숙박 프로그램	개
기타	개

6. 귀 업체가 1개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다음 각 항목의 비용 구성은 어떠합니까?

주 원재료	%
부재료	%
설비비	%
포장비	%
운송비	%
인건비	%
홍보비	%
기타	%

7. 귀 업체는 6차산업화 과정에서 다음의 자원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

중분류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농사(농업)	⑤	④	③	②	①
가축사육	①	②	③	④	⑤
특용작물생산	①	②	③	④	⑤
시설농업	①	②	③	④	⑤
특산물생산	①	②	③	④	⑤
농산가공시설	①	②	③	④	⑤
공업시설	①	②	③	④	⑤
판매시설	①	②	③	④	⑤
인공레저자원	①	②	③	④	⑤
전통건조물	①	②	③	④	⑤
전통풍습	①	②	③	④	⑤
향토음식	①	②	③	④	⑤
환경자원	①	②	③	④	⑤
경관	①	②	③	④	⑤
수자원	①	②	③	④	⑤
식물자원	①	②	③	④	⑤
동물자원	①	②	③	④	⑤
농업시설	①	②	③	④	⑤
네트워크기반시설	①	②	③	④	⑤
공공시설	①	②	③	④	⑤
숙박시설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활동	①	②	③	④	⑤
씨족세지풍속	①	②	③	④	⑤
지역문화활동	①	②	③	④	⑤
체험시설	①	②	③	④	⑤
생산문화활동	①	②	③	④	⑤
공동체조직	①	②	③	④	⑤

8. 귀 업체가 자연환경보호 및 자연재생 등을 위해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만원)

9. 귀 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① 폐기/매립 ② 판매 ③ 재활용 ④ 기타( )

10. 혹 부산물을 재활용한다면, 어떻게 재활용하십니까?
( )

11. 귀 업체는 다음의 재료구입 및 서비스를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 해당 비중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기입해 주세요.

구분	자가 생산	해당 읍면	해당 시.군	충남도	타 지역	수입	합계
원재료(밤. 사과, 콩 등)	%	%	%	%	%	%	100%
기타 농산물	%	%	%	%	%	%	100%
식품첨가물	%	%	%	%	%	%	100%
종묘/씨앗	%	%	%	%	%	%	100%
농자재	%	%	%	%	%	%	100%
농기계	%	%	%	%	%	%	100%
제조기계	%	%	%	%	%	%	100%
가공/체험시설(공장, 창고)	%	%	%	%	%	%	100%
포장재	%	%	%	%	%	%	100%
디자인	%	%	%	%	%	%	100%
비료	%	%	%	%	%	%	100%
에너지	%	%	%	%	%	%	100%
택배/운송	%	%	%	%	%	%	100%
은행	%	%	%	%	%	%	100%
특허	%	%	%	%	%	%	100%
법률	%	%	%	%	%	%	100%
세무	%	%	%	%	%	%	100%
식품위생검사	%	%	%	%	%	%	100%
연구개발 및 컨설팅	%	%	%	%	%	%	100%
홍보	%	%	%	%	%	%	100%
생산자단체(작목반 등)	%	%	%	%	%	%	100%
가공협회(연구회 등)	%	%	%	%	%	%	100%
정부정책	%	%	%	%	%	%	100%
교육훈련	%	%	%	%	%	%	100%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3] 기관별 지원유형별 정책사업

지원사업명	정책사업명
금융지원	• [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가공원료 매입자금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식품 시설현대화 자금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외식업체 육성자금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자금 • [농협중앙회]농축산경영자금지원 • [농협중앙회]농업종합자금지원 • [산림조합중앙회]산림사업 종합자금지원 • [농업정책자금관리단]농식품모태펀드 • [중소기업청]기술보증 지원 (기술보증기금)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 [중소기업청]PL단체보험 가입지원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컨설팅	• [농림축산식품부]6차산업화 경영체 컨설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 컨설팅사업 • [산림청]산림경영 컨설팅사업 •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업체 상시 기술·경영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기업 애로 상담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현장코칭 (경영, 기술코칭)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현장코칭 (R&D멘토링)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심층 컨설팅 (창업지원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심층 컨설팅 (경영개선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심층 컨설팅 (판로개척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심층 컨설팅 (고부가품목전환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유기가공식품 인증활성화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한식당 컨설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산업·BT 분야 창업 및 사업화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특허 전문가 현장 방문지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사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진단지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교육	• [산림청]산촌마을 주민 현장학교 운영지원 • [한국농어촌공사]농촌관광 핵심주체 역량강화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업·농촌 교육훈련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식품산업 전문 인력양성 • [한국마사회]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산업·BT 분야 교육지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 대학 경영학교 • [중소기업청]소상공인대학 창업학교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 상품화 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 물류비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 농식품 인증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수출용 유자차 품질인증브랜드 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공동대표 브랜드 (휘모리)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글로벌 K-FOOD FAIR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샘플 통관 운송비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국제 박람회 참가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바이어 거래알선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 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판촉행사 지원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개별 브랜드 지원 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환 변동보험 및 단기 수출보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농수산물 무역정보 (KATI) • [한국식품산업협회]해외 바이어 초청 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 수출 상담회 개최 • [한국식품산업협회]식품소재 및 기능성 식품기업 국제박람회 참가 • [산림조합중앙회]임산물 수출사업 • [한국마사회]국산 말 해외수출

연구개발	• [한국식품연구원]식품 기능성평가 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연구개발성과 실용화지원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기술사업화지원사업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분야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우수기술 사업화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식품 R&D기획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자재 농식품 분석지원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 [중소기업청]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 [중소기업청]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 [중소기업청]연구장비 공동활용지원사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 [한국발명진흥회]선행기술조사 • [한국발명진흥회]특허기술 시뮬레이션(3D)제작 지원 • [한국명진흥회]맞춤형 특허맵(PM)작성 지원
평가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 이력추적 관리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 산업표준 (KS 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전통식품 품질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술 품질 인증제도 • [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관광사업 등급제운영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업인·농산업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농업기술실용화재단]특허기술 평가 지원 • [중소기업청]해외 인증 획득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 [한국발명진흥회]국내출원비용 지원 • [한국발명진흥회]해외출원비용 지원

■ 집 필 자 ■

연구 책임 · 정현희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
내부연구진 · 권오성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책임연구원
이관률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김영수 충남연구원 농어업6차산업화센터 연구원

전략연구 2016-40 · 충남 농업 6차산업분야 지역자원 활용 및 확대 전략

글쓴이 · 정현희, 권오성, 이관률, 김영수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15(충남농어업 6차산업화센터)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384-1 03350

http://www.cd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